

05+06

2023 — Vol.64

미래로 가는 전남
농업



고부가가치 농촌융복합산업
전라남도 경제를 활성화하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라이브 전남농업방송



전남농업 E-Book



전남농촌교육농장



미래로 가는 전남농업

Cover Story

전라남도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공모에서 곡성군(토란)과 장흥군(한우)이 '지구조성사업' 분야에, 광양시(광양빵)가 '지역단위 네트워크구축사업' 분야에 선정되면서 농촌 고부가가치 창출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조성사업은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하여 농산물 제조·가공의 2차 산업과 유통·체험·관광의 3차산업을 연계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고, 지역단위 네트워크구축사업은 농촌 융복합산업 생태계 발전 도모를 위하여 융복합 인증사업자 중심의 네트워크 형성·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전남에서는 곡성군 멜론, 고흥군 유자 등 7개소가 지정 및 운영 중이며, 지정 후 특화자원 매출액이 120억 원 증가하고 246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기존의 유·무형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연결하여
신시장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미래로 가는 전남농업〉은 2014년 창간된 농업전문 매거진입니다.

한국 간행물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미래로 가는 전남농업

| | |
|---------|--|
| 발 행 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 발 행 일 | 2023년 6월 |
| 발 행 인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 박홍재 |
| 편집 인 | 기술지원국장 박용철 |
| 편집 책 임 | 자원경영과장 김도의 |
| 편집 기획 | 김병삼 박광영 이수영 |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 전 화 | 061-330-2597 |
| 팩 스 | 061-335-4199 |
| 홈 페 이 지 | www.jares.go.kr |
| 발간등록번호 | 78-60000-000450-07 |
| 기획·제작 | 방형식디자인 02-2082-6388 |



CONTENTS

05+06

2023 Vol.64

來人寶友—RAINBOW



농업 來 미래

농업 人 사람

농업 寶 가치

농업 友 생활



12



34



42



62

- 07 테마에세이 | 전라남도, 전국 농촌융복합산업을 선도하다
08 테마칼럼 | 전라남도 농촌융복합산업정책이 가야 할 방향
12 테마인터뷰 | 강진군 '다산명가·농업회사법인' 국령애 대표
16 테마리포트 | 전라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지원 안내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격증 안내

- 22 전라남도 유기농명인 | 제15호 신안군 '내양유기농영농조합법인' 김용현 명인
26 주목, 여성농업인 | 진도군 '메밀꽃유채향' 최솔잎 팀장
30 청년 & 청년창농타운 | 담양군 '청춘베리팜' 임동만 대표
34 발굴, 수출농가 | 해남군 '농업회사법인 해남버섯주'
36 농기원 사람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지역특화작목연구소 안내 ②
곤충잡업연구소·축산연구소

- 42 치U농장 체험 | 화순군 '허브뜨락'
46 마을기업 탐방 | 순천시 '순천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
48 귀농·귀촌 길잡이 | 귀농·귀촌인이 행복한, 희망찬 광양시
50 세계로 가는 K-농업 | 중국 동결건조 식품 시장동향
54 농 U P 테크 | 전남 농산물 이용한 'K-콤부차' 개발 산업화
56 병해충 정보 | 화훼·과수 병해충 방제

- 62 농업トレンド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펫푸드' 연구 개발
64 농업재정 | 전라남도의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66 안전과 건강 365 |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요령
70 농업인 교육 | 7월·8월 교육 일정
74 JARES 뉴스
78 독자마당

전라남도, 전국 농촌융복합산업을 선도하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2차 제조·가공, 3차 유통·판매 및 체험·관광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최근 2년간 평균 4,3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경영체를 일컫습니다.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가 2022년 10월 말 기준 396개소로, 2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하는 등 전국 농촌융복합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까지 인증 경영체 430개소를 육성,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운영 활성화와 생산제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성공 모델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 창출과 활력 증진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來:

RAINBOW

농업來 미래

Special Theme

- 07 테마에세이 | 전라남도, 전국 농촌융복합산업을 선도하다
- 08 테마칼럼 | 전라남도 농촌융복합산업정책이 가야 할 방향
- 12 테마인터뷰 | 강진군 '다산명가(卒)농업회사법인' 국령애 대표
- 16 테마리포트 | 전라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지원 안내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격증 안내

전라남도 농촌융복합산업정책이 가야 할 방향

국내외적으로 저성장 기조,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후 위기, 미·중 무역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 농업과 농촌에도 큰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현실도 농가인구 감소, 초고령화사회, 인구 과소화와 공동화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력과 지역 혁신역량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은 전라남도에는 더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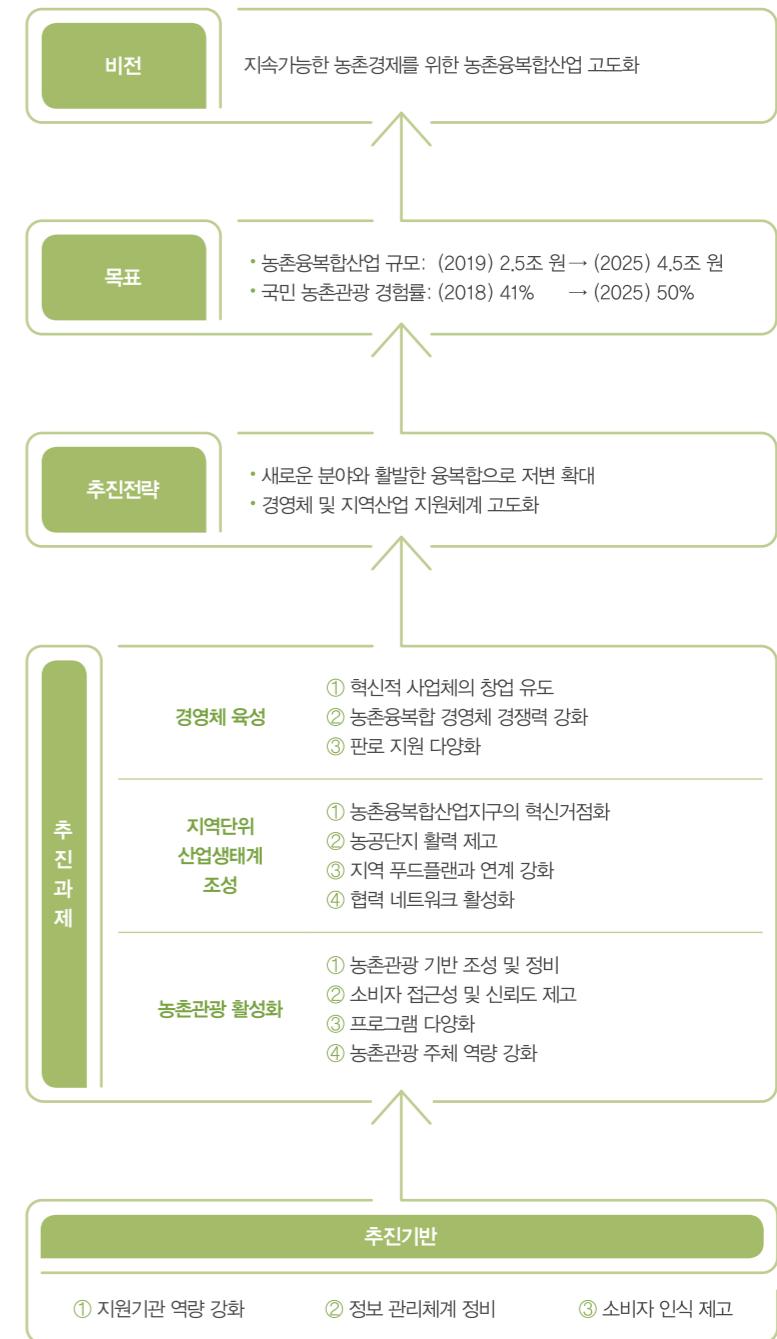
이러한 한국과 전라남도의 농업·농촌 현실에서 농업과 농촌을 기반으로 하여 2차산업과 3차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융복합화를 지향하는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 활력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10월에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계획에서 ‘지속가능한 농촌경제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고도화’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규모를 2025년까지 4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국민 농촌관광 경험률을 2025년에 50%까지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경영체 육성, 지역단위 산업생태계 조성, 농촌관광 활성화를 들고 있고,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지원기관 역량 강화, 정보 관리 체계 정비, 소비자 인식 제고 등을 표방하고 있다.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2021~202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 계획에 앞서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 기본 계획'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었다. 이 계획은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농촌 융복합산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 체계하에서 중앙부문 전문기관 지정, 시도 차원 지원센터 지정, 인증사업자 선정,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추진,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는 총 2,222개소(전남 396개소),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총 36개소(전남 7개소),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은 총 92개소(전남 12개소)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도단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11개 시도에 11개가 설치되었다.

법률에 근거한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 기본 계획'은 6차산업화 기반 조성, 6차산업화 경영체 육성, 지역 단위 6차산업 촉진, 농촌관광 활성화라는 네 가지 분야로 추진되었다. 인증자 매출액, 6차산업 창업자 수, 농촌체험마을 방문객을 목표로 삼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숫자 중심의 목표지향적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촌융복합산업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전문기관과 지원기관의 전문성 결여와 역할 정립 미흡, 추진체계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전라남도도 예외는 아니다. 농촌융복합산업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증에 따른 매출액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증업체의 경우 초기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이 인증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미 있는 결과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인증업체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지원을 한다면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전남지역에서는 기존에 나타난 문제들을 극복함으로써 전라남도만의 새로운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추진하고, 좀 더 체계적인 추진체계와 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야들과의 융복합화 촉진 등의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정책의 목표를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에 따라 중앙정부가 수립한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의 목표, 전략에 근거한 전라남도에 특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제1차 기본계획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양적 확대 및 정책 추진 기반을 갖춘 데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의 전라남도 기본계획은 기존의 성과를 계승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목표 설정에 있어 농촌융복합산업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두는 대신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수한 경영체를 육성하고, 전라남도 농업·농촌의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갖추도록 하는 전라남도 농촌융복합산업의 고도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1차 기본계획하에서 전라남도도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우수경영체 육성과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지향했다면, 2차 기본계획하에서는 전라남도의 정책 추진기반의 내실화를 꾀하고 인증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전라남도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역량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촌융복합산업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기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정책에서는 농업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공·체험·관광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 농업·농촌 관련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하고, 전라남도 농촌의 지역성에 기반한 넓은 범위의 산업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의 농촌융복합산업정책 추진체계를 좀 더 강화하여야 한다.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전라남도의 기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방분권화 강화 기조에 대응한 지자체의 농촌융복합산업정책 추진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이 나아갈 길, 융합에서 찾다

강진군 '다산명가(주)농업회사법인'
국령애 대표

글·사진 | 정환정(작가)



오랫동안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었음에도 농촌과 농업 현장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IT기술의 발달과 대한민국의 'K-Brand' 확산,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의 융합을 통해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시도가 가능해지며 새로운 희망의 싹이 자라났다. 국령애 대표는 다양한 것들의 융합이 이 새싹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산(茶山)의 역사와 철학을 담다

강진군은 전라남도의 빛나는 여러 지역 중에서 보석과도 같은 곳.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에 언제나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그 빼어난 재료를 이용한 남도백반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경험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대표적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이 후학을 양성하며 활발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한 곳이기도 하다.

“제가 시집온 해남 윤씨 가문이 바로 다산 선생님의 외가입니다. 선조들께서는 다산 선생님이 강진에 도착했을 때 초당을 내주고, 학문에 힘쓸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고 해요. 특히 4대조 할아버지께서는 열여덟 명의 제자 중 막내 제자로서 직접 많은 가르침을 받기도 하셨지요.”

다산명가(주)의 국령애 대표는 “그래서 시어머니로부터 다산 선생님께 전해 드리던 내림음식을 배운 것이 결혼 후 첫 교육이었다”라며 웃었다.

“다산 선생님이 계실 때는 냉장기술이나 유통방법이 변변치 못했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귀한 식재료는 발효하여 보관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강진의 특산품 중 하나인 전복을 정성스럽게 손질해 고추장과 함께 볶아 ‘장볶이’라는 음식을 만들어 다산 선생님께 선물로 드리곤 했다더군요.”

육식보다 채식을 즐겼던 다산 선생은 그 전복 고추장을 참으로 귀하게 여겼다고 한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방문할 때나 식욕을 잊었을 때만 특별히 꺼내어 먹을 정도로 아꼈는데, 지금의 다산명가(주)는 바로 그 전복 고추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다산의 고추장, 융합을 꿈꾸다

국 대표가 사업을 시작한 것은 전복 고추장의 가치가 입소문을 타고 널리 알려지면서부터였다. 한 번 맛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제품화를 간청할 정도로 맛이 뛰어났다. 그래서 균질한 고추장을 제대로 생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와 함께 된장과 간장도 제품화가 이루어졌다.

“다산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들이었기에 한 치도 허투루 만들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서울의 유명 백화점에서 먼저 입점 제의가 왔고, 예상보다 많은 사랑을 받았지요. 그런데 사업을 일구다 보니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국 대표는 자신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농촌과 농업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그 한계가 여실했으며,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 역시 규모가 따라주질 않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농가가 많았다. 그런 현실에서 새롭게 제시된 것이 바로 6차 산업이라는 개념이었다.

원물을 재배하고 판매하고 가공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와 현장에서 만남으로써 농촌과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키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이야말로 농업이 아니면 이루어 낼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의 산업.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6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 국 대표는 (사)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의 회장으로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기도 하다.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2,222개의 인증 경영체가 저마다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이 중 전라남도에는 396개의 인증 경영체가 활동하고 있어요.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대면 운영이 불가능하여 수익이 악화될까 우려가 컸지만, 오히려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사업을 추진하면서 177개 경영체가 26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 결과였기에 더욱 뜻깊은 성과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산업 형태로서의 융합이 아닌, 사람과 사람 그리고 뜻과 뜻의 융합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었다며 환하게 웃던 국 대표는 “하지만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입찰의 경우, 인증 경영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농촌과 농업 현장의 참여자들은 훨씬 더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 대표의 견해였다.



다산 정신, 전 세계를 향하다

국 대표는 이제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식품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한류의 영향 덕분에 한식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시기. 그중에서도 전통 장류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실제 다산명가(주)의 어린이용 간장과 간편 된장 등은 풍부한 영양소를 갖춘 저염 제품이라는 장점 덕분에 7개 나라로 수출이 진행 중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오랫동안 숙성되어 푹 익은 김치인 ‘묵은지’가 곧 수출 예정이라는 사실. 직접 배추를 재배하고 젓갈을 담그는 국 대표의 정성 덕분에, 다산명가(주)의 묵은지는 물기 하나 없이 농밀한 맛을 자랑한다. 그래서 한식의 깊은 맛을 찾는 해외 소비자에게 ‘진짜배기 김치’로 각광받고 있다. 게다가 다산명가(주)는 예상치 못 한 큰상을 최근 수상하기도 했다.

“베스트 오브 가스트로노미(Best of Gastronomie)상을 받았어요. 미슐랭이 레스토랑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베스트 오브 가스트로노미는 개인과 기업이 생산한 음식은 물론 과자나 음료도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되지요.”

1984년 프랑스에서 조직된 베스트 오브 가스트로노미는 현재 17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거대 글로벌 미식 기구. 수상으로 다산명가(주)에서 생산 중인 다양하지만, 한결같은 제품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다산명가(주)는 다산 선생님의 애민정신을 식품에 담았다고 자부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되살릴 바른 먹거리 생산, 방부제와 화학첨가물이 없는 착한 먹거리 제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다산명가(주)의 운영철학이거든요.”

다산자연치유학교를 건립해 땅을 되살리고, 건강한 원물을 생산하여 치유 기능이 함유된 요리를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국 대표. 다산의 철학과 올바른 음식의 융합, 그것을 매개로 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어떤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낼지 모두 진지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다. ☺



전라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지원 안내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1차산업)을 바탕으로 농식품, 특산품 제조기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3차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출처 | 전남농촌융복합사업지원센터



농촌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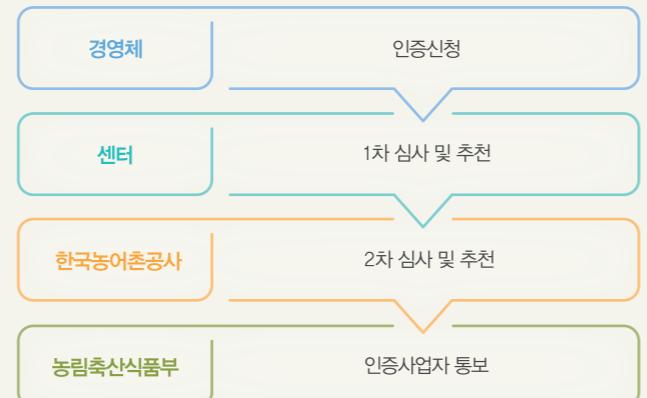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이란?

지역농산물을 가공품을 만들거나 체험 등에 활용하는 경영체 중 성장 가능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하는 제도(인증기간 3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조건

| 구분 | 세부내용 |
|------------------|--|
| 대상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
| 사업장 입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에 규정된 농촌지역 |
| 사업형태 및 주원료 확보 현황 | 농촌융복합형태 및 주원료 확보 현황 • 주원료 100% 국산 농산물, 50% 이상 지역 내(전남도) 농산물 • 주원료 매입 100% 인증 불가 |
| 사업성과 | 최근 2년간 매출액 평균이 평균농가소득 달성 ※갱신사업자는 3년 성과 평가 |
| 기타 |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 |

인증심사 절차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코칭 및 판로지원

현장코칭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 희망 농업인

접수기간 11월(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지원내용 경영체의 경영, 기술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 및 상시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 밀착형 방문코칭

| 구분 | 세부내용 | 지원비용(자부담 20%) |
|-------|--|---|
| 일반코칭 | 분야별 전문가 코칭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목적으로 최대 4회까지 지원 | 경영체당 1회 50만 원 (최대 4회, 200만 원) (자부담 10만 원) |
| 제품컨설팅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 업체 입점을 전제로 제품 품질관리, 포장디자인, 스토 리텔링 등 최대 2회까지 코칭 | 경영체당 1회 300만 원 (최대 2회, 600만 원) (자부담 60만 원) |
| 보육매니저 | 경영진단,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여 최대 12개 월(12회)까지 상시 모니터링 ·컨설팅 | 경영체당 1개월 100만 원 (최대 12개월, 1,200만 원) (자부담 20만 원) |

HACCP 인증 교육지원

지원내용 HACCP 인증 획득을 위한 교육지원

청년지원

지원내용 청년자문단의 경영 및 기술노하우 전수를 통해
인증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

판로지원

지원대상 해당 사업 추진 인증 경영체

지원내용 안테나숍(광주 신세계, 순천만정원, 남도장터, 장성로컬) 입점,
직거래장터 및 온라인 기획전, 홈쇼핑 마케팅 지원 등

인증 경영체 시제품 제작

지원내용 아이디어가 뛰어난 신규제품을 개발한 경영체에 시제품
제작비 지원(국·도비 5,400천 원, 자부담 600천 원)

신청문의 전남농촌융복합사업지원센터

6차산업 활성화 및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제품개발·시설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창업계획이 있는 자

대출조건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자금용도 시설·리모델링 자금 최대 30억 원(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운영자금 최대 3억 원(2년 일시상환)

농촌융복합사업화 인증 경영체 융복합강화사업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사업 인증 경영체

사업비 1,000백만 원(균특¹⁾ 500, 시군비 100, 자부담 400)

경영체당 지원한도: 100백만 원(균특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지원내용

- S/W: 가공제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 등
- H/W: 가공 및 체험시설의 신축, 리모델링

어르신 등 체험활동 꾸러미지원

지원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체험활동 꾸러미 구입비용 지원

참여조건 농촌융복합사업 인증 경영체 중 국내산 원료로

체험 꾸러미를 제작한 업체

지원내용 2,500백만 원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

지원대상 1차, 2차, 3차산업 분야의 주체와 연합한 협의체

지원내용 사업단 역량 강화 및 자립화에 관련한 마케팅지원

2년간 2억 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농촌융복합사업 지구조성사업

지원대상 시군 농업·관광·기업지원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
사업추진단 구성

지원내용 가공·저장·판매시설 등 융복합 인프라, 역량 강화 및
선진지 벤치마킹, 산지 판매촉진, 마케팅지원 등

4년간 30억 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신청문의 각 시군 / 전라남도청(농식품유통과)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격증 안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활로로 농촌융복합산업에 관심 갖는 농업인이 늘고 있다. 단순생산만으로 소득을 얻던 과거와 달리, 체험·관광프로그램까지 진행하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자격증을 소개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치유농업사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프로그램 개발과 관리는 물론 치유농업자원 및 치유농업시설 운영 등에 대한 전문업무를 수행하며, 식물을 가꾸고 동물과 교감하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 등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다.

치유농업사 취득요건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1급과 2급으로 등급이 구분되며,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객관식 4지 택일형)과 제2차 시험(주관식 논술형·악술형 혼합)으로 치러진다.

- ① 1급 치유농업사는 2급 치유농업사 자격 소지자가 치유농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1급 양성과정을 124시간 이수한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26년 시행 예정)
- ② 2급 치유농업사는 양성과정을 142시간 이수한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응시는 교육 이수 외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내용

| 교육분야 | 교육과목 |
|-------------|---|
| 1급 치유농업사 |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과 경영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
| | 치유농업을 통한 정신건강·재활, 치유농업서비스 대상자의 중점관리 |
| | 치유농업자원의 관리, 치유농업시설의 환경관리 |
| | 치유농업서비스 사업의 기획·관리, 치유농업서비스 종사 인력의 역량 강화 |
| 2급 치유농업사 |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개발, 치유농업서비스의 실행, 치유농업서비스의 평가 |
| | 치유농업 개론, 치유농업서비스의 대상자 진단 |
| | 치유농업자원의 관리, 치유농업시설의 환경관리 |
| | 치유농업프로그램의 기획·개발, 치유농업서비스의 실행, 치유농업서비스의 평가 |

도시농업관리사

도시농업관리사는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 도시농업 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도시농업관리사 취득요건

도시농업관리사는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이 아닌, 과정 이수형 자격으로 도시농업관리사 취득을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증(9종) 취득 후 도시농업전문과정 이수가 필수이며, 국가기술자격증과 도시농업전문과정 이수증을 소지한 자에게 발급된다.

- ① 국가기술자격증 9종은 국가기술자격의 범위(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농화학·시설원예·원예·유기농업·종자·화훼장식·식물보호·조경·자연생태복원 분야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총 80시간 이상/이론·실습 각 4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내용

| 구분 | 교육내용 |
|-------------------|--|
| 도시농업 이해 |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친환경농업의 개념, 귀농·귀촌, 농산물 직거래 등 도농상생시책 등 |
| 도시농업 기반조성 | 텃밭 설계, 관배수 시설, 폐기물 관리, 농자재 이용 및 관리 등 |
| 도시농업 기술 | 텃밭농사기술, 벽면 녹화 기술, 원예를 통한 정서순화, 곤충사육 및 양봉 기술 등 |
| 친환경농사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 | 병해충 관리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 요령 |
|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 도시농업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농사요령 보급 등 |
| 도시농업 관련 법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도시농업 관련 법의 이해 |
| 도시농업 리더십 | 도시민과의 의사소통 방법 등 |
| 프로그램 평가 | 도시농업 사례 발표 및 평가 등 |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어촌체험지도사는 농어촌 현장에서 체험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미을 자원을 소개하는 등 지역 특색에 맞춰 차별화된 체험을 지도하는 전담 인력이다. 교육은 농촌체험지도사의 역할, 농촌체험 관련 법령 및 제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법 등 농어촌체험지도사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교육을 수료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하는 농어촌체험지도사 자격증이 교부된다.

농어촌마을해설가

농어촌마을해설가는 농어촌 관광 품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현장에서 관광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고 운영하는 전문 인력이다. 교육은 농어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 농어촌해설프로그램 지도 기법, 농어촌해설 계획 및 실제 평가운영 실습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을 수료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하는 농어촌마을해설가 자격증이 교부된다.



“인생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균형을 잃지 않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독일 태생의 이론 물리학자이자 ‘상대성이론’으로 유명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아들에게 쓴 편지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균형을 잃으면 자전거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넘어지듯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삶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움직여,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것.
마음을 열면 낡은 사고방식과 고정관념도 사라집니다.



人: RAINBOW 농업人 사람

Index

- 22 전라남도 유기농명인 | 제15호 신안군 '내양유기농영농조합법인' 김용현 명인
- 26 주목, 여성농업인 | 진도군 '메밀꽃유채향' 최솔잎 팀장
- 30 청년 & 청년창농타운 | 담양군 '청춘베리팜' 임동만 대표
- 34 밭 굴, 수출 농가 | 해남군 '농업회사법인 해남버섯'
- 36 농 기 원 사 람 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지역특화작목연구소 안내 ②

곤충잡업연구소·축산연구소



유기농업의 미래는 관광산업과 기능성 식품

불려받은 땅에서 부모님과 함께 농사짓던 1985년 무렵, 그때는 농약 중독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였다. 해결방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친환경과 유기농업. 노력 끝에 신안군 지도읍의 선도농업인 52명을 모아 신안군 최초의 친환경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유기질 퇴비를 만들고 친환경 농자재 액비를 만들어 사용한 결과 1995년 친환경인증을 받았고, 1997년에는 유기농인증을 받게 되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 1번지'인 전남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친환경 교육 실시로 전남의 유기농업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유기농명인을 지정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을 소개합니다.

우렁이농법으로 유기농 벼 재배에 성공

“쉽게만 생각했던 농업에도 다양한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1997년에 목포대학교 농업최고경영자과정에 입학했어요. 병리학, 토양학, 비료학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유기농업에 관해 교수님들과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신안군에서 평생을 유기농업과 함께해 온 김용현 명인. 2010년 '전남 친환경 농업 대상' 수상, 2012년 '전남 유기농명인' 제15호로 선정될 만큼 전문가인 그에게도 누구나 그렇듯 초보인 시절이 있었다. 처음 친환경 벼 재배에 도전했을 때 쌀겨농법으로 시작했지만 제초의 어려움을 겪었고, 그 후 2년 동안은 오리농법을 시도했으나 야생동물의 피해를 보는 등 난관에 부딪쳤다. 시행착오 끝에 성공을 거둔 것은 바로 우렁이농법. 우렁이농법이란 제초제 대신 논에 넣은 우렁이가 각종 잡초를 먹게 하여 방제하는 농법이다. 이 농법으로 생태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도 90% 이상 잡초와 병해충이 해결되었기에 친환경 벼의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졌다.

“1990년대 중반쯤 일 겁니다. 다른 농가들이 밀식재배를 했을 때 저는 50주 미만으로 벼를 심어 통기성이 좋아지도록 했어요. 여기에 폐식용유와 목초액을 사용한 벼멸구 방제 방법도 효과적이었지요. 은행잎, 멀구슬, 협죽도, 마늘생즙, 자리공생즙 등 다섯 가지를 이용하여 살충제로 사용하고, 마늘유와 목초액, 현미식초 등으로는 살균제를 만들어 균 방제를 시행했습니다.”

유기농 벼 재배기술을 타 농가에 숨김없이 전수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산물을 수매해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유통판로를 확보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던 김 명인은 지난 2015년에는 '전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직을 맡아 조직의 발전을 위해 힘썼다. 김 명인은 유기농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는데, 친환경농법의 전수도 중요하지만 '친환경이 왜 중요한지'를 먼저 체득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건강한 먹거리로 모든 이에게 건강한 삶을

유기농산물의 생산량 증가로 생산 기술과 유통이 중요해지자 김 명인은 ‘내양유기농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다. 현재 125,640m²의 광역단지를 조성해 관리하며 유기농 벼·마늘뿐만 아니라 바나듐(Vanadium)이 함유된 유기농 양파와 유기농 장류 등을 생산 중인데, 바나듐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당뇨병 예방 효과가 있으며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혈관질환 개선 및 혈관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흑설탕효소액, 청초액비, 목초액 만드는 공장 200m², 쌀겨퇴비창고 200m², 양파냉 장고 160m², 교육장 150m² 등을 조성하여 ‘내양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서는 함께 기술을 배우고,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유기농 벼 700톤을 유통하면서, 바나듐을 시비한 유기농 콩으로 만든 유기농 장류 20톤을 생산 중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기능성을 더한 유기농 농산물 생산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요.”

평소 ‘건강은 먹거리에서 온다’라고 믿는 김 명인은 생산한,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바람의 연장선상에서 2007년 8월에는 ‘내양녹색체험마을’을 시작하였다. 도시 사람들에게는 휴식과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고, 내양마을 주민에게는 숙박과 농산물 판매 등으로 소득을 창출할 기회였기 때문이다.

“주위에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하면 유기농업의 6차산업화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소비자가 체험을 통해서 유기농업의 실체를 경험하게 된다면, 친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내양녹색체험마을’ 인터넷 누리집(www.oeyang.co.kr)에 방문하면 마을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체험프로그램, 숙박 등 이용 방법에 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목표는 부끄럽지 않은 유기농명인이 되는 것

해마다 4월 말이 되면 신안군 지도읍의 들판은 노랗게 물이 든다. 150ha 면적에 조성된 유채꽃 단지 때문인데, 내양마을을 유기농 유채꽃 단지로 탈바꿈시킨 장본인이 바로 김 명인이다.

“처음 마을에 유채를 심는다고 했을 때 다들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지요. 농사 짓기도 바쁜데 무슨 유채꽃밭이냐며 싫은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단순히 경관 조성을 위해서 유채를 심자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채를 유기질 비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유채는 다른 채소보다 영양소가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유채기름이나 유채김치로 상품화해 판매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유채는 꽃이 피면 매력적인 관광자원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쓰임새가 다양한 작물이다. 그러한 데다가 마을에 지급되는 경관보전직불금까지 들어 났으니, 김 명인의 선택이 탁월했음을 증명한 셈이다.

“환경을 보전하여 자연생태계를 살리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유기농명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생각이에요. 특히 저와 함께 친환경 연구회를 조직하고 유기농업 정착에 힘써주신 고(故) 김종열, 김철중, 박인곤, 박동명, 이현숙, 김영환 님에게 감사드리며, 유기농업이 후손에게 유산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친환경기념비를 지난 4월 21일에 세웠습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여 유기농업 발전에 모범이 되겠습니다.”

김 명인은 ‘유기농업의 미래는 관광산업과 기능성 식품에서 찾아야 한다’ 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시작한 일은 끝까지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하기에, ‘유종지미(有終之美)’를 향한 김 명인의 도전은 오늘도 진행 중이다. ☚





당신에게 진도의 보배를 선물합니다

진도군 '메밀꽃유채향' 최솔잎 팀장

전라남도는 여성농업인의 비중이 전국 대비 높은 편입니다. 농촌 발전의 주체로서 지역사회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전라남도 여성농업인을 소개합니다.



메밀꽃유채향



아버지 최장우 대표와 함께

여러 갈래로 뻗어 있는 삶의 길. 그중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사소한 사건, 혹은 우연한 만남에서 비롯될 때가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앞장서는 '기자'라는 직업을 꿈꾸던 고등학생 소녀에게도 그랬다. 광양시 청매실농원 홍쌍리 명인의 강의를 듣게 된 기회가 소녀의 꿈을 180° 바꿔놨기 때문이다. 그때 '농업을 천직으로 삼겠다'라고 결심한 소녀는 마침내 어엿한 농부가 되었다.

열아홉 소녀의 '농부' 선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변치 않는 농업 철학과 친환경에 대한 고집을 보고 자라서인지, 농업은 대를 이어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평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도 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를 따라간 벤처농업대학 워크숍에서 홍쌍리 명인의 강연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지요. 농업은 의지와 끈기와 목표의식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결심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대를 잇는 농부가 되겠다고."

그때의 선택이 진도군에서 3대째 친환경농업을 고집하고 있는, 지금의 최솔잎 팀장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이 처음부터 가족의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특히 어머니는 19살의 딸이 농사를 짓겠다고 하니까 반대를 많이 하셨다. 최 팀장은 "누군가는 꼭 이어 나가야 할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제가 하겠다"라고 여러 번 간곡히 말씀드린 끝에 부모님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승낙하시면서 부모님이 '너의 선택이니 앞으로의 책임도 후회도 오롯이 너의 몫이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 후 한국농수산대학 식량작물학과로 진학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워서 채워 나갔고요."

아버지께서 '소나무처럼 늘 푸르게 살라'는 의미로 지어주신 이름처럼, 자신이 선택한 길에 들어선 최 팀장은 학교생활 외에 단기연수와 봉사활동 등을 통해 빛나는 농업인이 될 준비를 차실히 해나갔다. 특히 대학에서 성적 우수자로 뽑혀 경험했던 뉴질랜드 연수는 그녀에게 농촌융복합산업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만들었다.



대표 품목은 메밀가공품과 유채유

봄에는 샛노란 유채꽃이, 가을에는 새하얀 메밀꽃으로 가득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메밀꽃유채향’은 최 팀장의 아버지, 최장우 대표가 지은 이름이다. 2010년 진도에서 최초로 메밀을 재배한 아버지 곁에서 최 팀장은 2016년부터 흙과 사람을 살리는 친환경농법으로 작물을 키우고, 가공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다양한 제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진도에서 생산하는 메밀의 고정적인 판로를 찾다가 2014년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재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메밀을 재배하던 농가들이 모여 탄생하게 된 것이 ‘메밀꽃유채향’입니다. 다행히 메밀은 계약재배 덕분에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는데, 문제는 메밀의 파종시기는 여름이고 수확시기는 가을이라는 점이었지요. 겨울과 봄에 농가의 수익을 보장해 줄 재배 작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유채였습니다.”

현재 최 팀장은 부모님과 함께 진도군 의신면과 진도 부근의 섬인 관매도에서 총 40만m² 규모로 메밀과 유채를 비롯하여 귀리, 녹두, 기장, 수수, 밀 등 잡곡류를 재배하고 있다. 여기에 수확한 작물을 건조, 보관, 도정 및 가공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놓고 운영 중이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품목은 메밀가공품과 유채유예요. 메밀가공품은 밥에 넣어 먹는 메밀쌀과 밀가루 대신 활용 가능한 100% 메밀가루, 또 기능성 메밀로 만든 쓴메밀차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건강 관리를 위해 메밀을 찾는 분이 많다 보니 유기농법으로 생산한 메밀꽃유채향 제품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채유의 경우에는 영양소 파괴가 적고 맛과 향이 살아있는 암착 방식으로 착유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메밀꽃유채향’ 제품은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jindomemil), 또는 진도군 특산물 전문매장인 ‘진도 명품관’과 서울시 ‘상생상회’ 등의 오프라인 판매처에서 만나볼 수 있다.



스타청년농업인이 만든 ‘메밀꽃유채향’

19살 때 농부가 되겠다던 최 팀장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확신을 준 순간도 있었다.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2021년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스타청년농업인’ 30명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스타청년농업인’은 식량작물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인지도 높은 청년농업인 가운데 선발되었다.

“선정되었을 때 정말 감사했고,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스타청년농업인이 되고 나니 귀농에 관심 있는, 특히 여성분들의 문의가 많았는데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메밀과 유채 관련 질문, 심지어 지역 주민과의 소통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문의하신 분들의 간절함을 충분히 알기에, 저의 지식이나 경험을 최대한 나누려고 노력했지요.” 귀농을 고려 중인 분들에게 최 팀장은 선배로서, “귀농하고자 하는 곳에 자주 가보세요”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한다.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마다 색깔과 향이 있는데 그 색과 향이 자신과 잘 어울리는지 확인해 보라는 의미에서다. 또한, 귀농한 순간부터는 ‘개인사업자’라고 할 수 있기에, 농사 외에도 노무·회계·세금·사업 공모·보조 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야 하고 익숙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도 농업은 정년이 없는, 아주 멀리 보고 도전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이 핵심이지요. 그래서 저도 차근차근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유채유는?’, ‘가장 우수한 품질의 메밀은?’, ‘나의 건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은?’, 이러한 질문에 자신 있게 ‘메밀꽃유채향’이라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요.”

농업과 교육, 체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메밀꽃유채향’을 만들기 위해서 최 팀장은 오늘도 자신이 선택한 삶의 길을 뚜벅뚜벅 걷고 있다. 당당하고 씩씩하게. ☺



딸기는 봄이니까 청춘이다

담양군 '청춘베리팜' 임동만 대표



지난해 11월, '청춘베리팜' 임동만 대표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2022 강소농 대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 강소농 지원사업은 중소가족농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역량강화 교육, 맞춤형 컨설팅, 자율모임체 활동 지원 등 작지만 미래성장 가능성이 큰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은 매년 우수강소농을 선발한다. 2020년부터 강소농 지원사업에 참여한 임 대표는 그렇게, 청년농업인에서 전남을 대표하는 우수강소농으로 진화하였다.

소득 100%가 딸기체험형 모델

임동만 대표는 대학에서 보건계열을 전공하고 2008년부터 6년 정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평소 자신의 꿈이었던 '흙과 함께하는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담양에 정착한 귀농 4년 차 청년농업인이다. 귀농 후 5,030m² 부지에 딸기 시설하우스 5개 동을 마련하여 설향과 킹스베리 품종 등 딸기 농사와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청춘은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철'을 뜻하고, 봄철 대표 과일은 바로 딸기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합친 이름이 '청춘베리팜'입니다. 사실 귀농 후 첫 재배작목으로 딸기를 선택한 이유는 담양이 '전국 3대 딸기 주산지'이기에, 딸기 농사를 지으면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안일한 생각에서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딸기만 심으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귀농 첫해에 홍수로 하우스가 침수되었기 때문이다. 군인과 주위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정상 복구되는 데 한 달이나 걸렸다. 그리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생산된 딸기는 공판장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고민 끝에 임 대표는 체험농장 운영에 승부수를 걸었다.

"지금은 100% 딸기체험형 모델로만 소득을 얻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물량이 부족해서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택이었지요. '청춘베리팜' 딸기체험은 100% 예약제로 운영 중이고, 네이버 예약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현재 '청춘베리팜'은 공사 중이다. 1,200평 규모의 스마트팜 1동으로 탈바꿈하여 올해 12월 오픈 예정인데, 쾌적한 시설에서 즐기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목표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리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주최한 ‘2022년 전남 청년 4-H 과제 경진대회’에서 임 대표는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청년 4-H 과제 경진대회’는 청년의 융복합기술농업 개발을 유도하고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과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 대표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대상을 받았다.

“딸기는 심어놓으면 알아서 잘 크는 작물인 줄 알고 시작 했다가 좌절을 맛본 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다양한 교육을 비롯해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청년창업농 양성과정과 강소농 민간전문가 경영 컨설팅 등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빠짐없이 참여했어요. 매년 300~400시간 정도 교육 수료를 하였고, 현재까지 약 1,400시간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쌓인 시간 덕분에 과제 경진대회 대상도, 우수강소농 선발도 가능했습니다.”



지난해 임 대표는 새로운 사업 진행을 위해 청년창농타운 입주를 단행하였다. 청년농업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자율형 공모사업인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참여한 것이 계기였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통해 딸기청 시제품을 생산한 후 유통·판매 관련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청년창농타운에 입주하면 사무실은 물론이고 사업에 필요한 여러 도움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픈 마음에서, “체험농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싶다”라는 임 대표의 최종 목표는 힐링과 체험이 결합된 융복합 테마파크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리더가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던 가. 좌절을 딛고 청년농업인에서 우수강소농이 되었듯이, 머지않아 리더로 진화할 그의 모습을 함께 지켜보자. ☀



임동만·이미정 부부



‘청년창농타운’ 주요시설 안내_ II. 제품지원센터



• 역할

식품가공 장비 및 기술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실무능력 배양공간

• 활용대상

도 기관, 시군농업기술센터,
창농타운 식품가공 교육 이수자

• 시설구성

지상 2층 / 2,003㎡
(건·습식가공실, 전처리실, 분쇄실, 성형실, 오픈키친 등)



습식가공실 과일 파쇄기, 농축기, 추출기, 착즙기, 당화기 등



건식가공실 건조기, 원적외선 볶음기, 냉각기, 혼합기, 퍼핑기, 착유기 등
건식포장실 분말스틱 포장기, 티백 포장기, 캔시머, 실링기 등



전처리실 세척기, 과일분할기, 감자 탈피기, 야채슬라이스기, 자와선 살균기 등



분쇄실 저온 미분쇄시스템, 저온 초미립 분쇄시스템, 롤밀 분쇄기 등
성형실 만두성형기, 튀김기, 진공감압유탕기, 팝콘 제조기, 견면 절단기 등



오픈키친 발효기, 소시지 충진기, 3D식품프린터, 진공포장기, 오븐 등

해남버섯, 고품질·고급화가 수출전략

해남군 ‘농업회사법인 해남버섯(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국내외 경쟁력 있는 버섯 품종 육성과 새로운 소득 버섯의 개발 및 건강 기능성을 활용한 제품 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소비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꾀하고 있다. 특히 판로개척을 위하여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 해남 새송이버섯의 경우에는 품질이 우수해 국내외 바이어는 물론 일본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아, 전남의 대표 수출 신선 농산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전남의 우수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의 수출확대 및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도내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수출국 맞춤형 제품 개발과 유통기술을 지원받아 수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소개합니다.



조직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우수한 해남 새송이버섯

해남군 마산면에 자리한 ‘농업회사법인 해남버섯(주)’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선별과 공동출하를 목표로, 2014년 해남군의 버섯 재배 농업인 45명이 출자하여 설립한 업체이다. 2015년 선별장과 저온저장고를 신축하고, 2018년에는 ‘종자산업기반 구축(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신선하면서도 저렴하게 종균을 생산할 수 있는 배양시설을 완비하였다. 1999년부터 새송이버섯 재배를 시작해 국내 새송이 재배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김황익 대표를 비롯한 종균배양사 자격증 보유 조합원들이 지금까지 우수한 종균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농업회사법인 해남버섯(주)’에서 재배한 새송이버섯은 조직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우수하여 수출시장에서의 인기가 높은 편이다. 철저한 고품질·고급화 전략을 고수하는 것이 그 비결인데, 수출량 확대를 위해 온도·습도, 종균관리 등 생육관리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정도로 품질관리 수준이 엄격하다. 실제로 수출용은 버섯의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출하보다 2도 정도 낮은 12~13도로 저온 생육한다.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흑석로 187

‘농업인의 날’ 산업포장 수상한 농업회사법인 해남버섯(주)

‘농업회사법인 해남버섯(주)’의 첫 수출은 2017년 국제농업박람회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성사되었다. 당시 1:1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2018년 1월, 일본과 첫 수출계약을 체결했던 것. 그해 새송이버섯의 일본 수출을 통해 3억 원 정도 실적을 올린 후 계속해서 수출시장에 도전한 결과 호주와 캐나다 등으로 수출국을 확대하였다. 전 세계를 훔쓴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수출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과 베트남 등으로 수출이 진행 중이다.

연도별 수출실적

2023년 3월 말 기준, 중량: kg/금액: 천 원

| 년도 | 일본 | | 미국 | | 캐나다 | | 호주 | | 합계 | |
|------|---------|---------|--------|--------|--------|--------|-------|--------|---------|-----------|
|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 2020 | 79,192 | 208,860 | | | | | 1,066 | 3,733 | 80,258 | 212,593 |
| 2021 | 122,421 | 327,600 | | | | | 2,400 | 7,650 | 124,821 | 335,250 |
| 2022 | 132,659 | 377,898 | 14,011 | 21,016 | 14,016 | 53,376 | | | 160,686 | 452,290 |
| 2023 | 24,525 | 75,855 | 10,665 | 15,997 | | | | | 35,190 | 91,852 |
| 합계 | 358,797 | 990,213 | 24,676 | 37,013 | 14,016 | 53,376 | 3,466 | 11,383 | 400,955 | 1,091,985 |

지난해 11월 ‘제27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농업회사법인 해남버섯(주)’ 김황익 대표는 산업포장을 수상하였다. 해남군버섯 생산자연합회를 구성하여 재배기술 농가 보급 등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 일본·호주·캐나다 등 수출을 통해 소득증대와 지역 및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국내 버섯시장의 안정화와 농가의 수익증진을 위하여 계속해서 수출길을 넓혀 나갈 각오이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도 김 대표를 도와, 수출시장 개척 종합 마케팅 지원 등 신선농산물의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농업회사법인 해남버섯(주)’의 주요 생산품은 새송이버섯과 느타리버섯이며, 광주·전남지역 도매시장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납품하므로 전라남도 어디서라도 손쉽게 확인 및 구매가 가능하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지역특화작목연구소 안내 ②

글 | 곤충잠업연구소 최덕수 팀장·축산연구소 최영선 팀장

1914년 설립된 산업곤충 전문 연구기관, '곤충잠업연구소'

곤충잠업연구소는 1914년 광주시 임동에 '도립 잠업강습소'를 설립한 것이 그 시초로, 1964년 연구소의 현재 위치인 장성군 장성읍으로 확장, 이전하였으며 2011년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로 개칭하였다. 전남지역 양잠산업 육성을 위한 우량 누에씨 공급을 목표로 하는 잠업 전문기관으로 출발하여,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산업곤충 연구를 도입한 연구기관으로 분야를 확장하면서 양봉, 갈색거저리, 벼메뚜기 등 식용곤충에 관한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현재 총 21명의 직원이 곤충산업 경쟁력 및 부가가치 향상 기술 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무하며, 식용곤충 보급형 스마트 사육시스템 개발 및 표준화 연구, 저탄소 실현을 위한 식용곤충 이용 대체육 제조기술 개발, 기후 위기 대응 화분매개곤충 안정생산 체계 구축, 곤충 소비 확대를 위한 반려동물의 다양한 팻푸드 개발, 대량사육 곤충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질병 관리기술 개발 등 8개 중점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곤충잠업연구소 주경천 소장



● 연혁

1914. 4

도립 잠업강습소 개장

1963. 4

전라남도 잠종장으로 개칭

1964. 7

현 위치로 확장 이전



1993. 8

잠종장과 잠업검사소,
잠업사업소로 통합

1998. 12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잠종장으로 개칭

전라남도 곤충잠업 현황

전국의 곤충 사육농가는 2021년 기준 3,012농가에서 4,389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전남은 181농가, 267명으로 전국 대비 6% 수준이며 연간 판매액은 전국 446억 원 가운데 전남 38억 원으로 비중이 적은 편이다. 곤충은 흰점박이꽃무지,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순으로 많이 사육한다.

산업곤충과 잠업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소득증대를 위하여 곤충잠업연구소는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표적으로 갈색거저리의 기능성 성분을 분석하여 항산화 및 미백효과가 있는 3종의 미백화장품을 개발해 실용화하였고, 초콜릿·어묵·비스코티·생선소스 등 항산화 활성 가공식품을 개발하였다. 또한, 반려견용 간식 쿠키와 너깃 개발을 통해 반려견 간식시장에서 연 15억 원의 수입 절감효과를 창출하였다. 이 밖에도 꿀벌의 장내 유용미생물을 발굴, 증식하여 화분 떡에 넣어 공급 시 양봉의 봉군유지력이 강해진다는 결과를 얻어 특허출원하였다.

곤충잠업연구소 향후 계획

최근 곤충의 가치가 '지구상의 마지막 미개발 생물자원'으로 재평가되면서 곤충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양학적, 환경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곤충이 미래의 식량 위기를 해결할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곤충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 의약품 개발 등 곤충을 이용하는 산업의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이러한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비 절감이 필수적이다. 이에 곤충잠업연구소는 식용곤충 생산단계에서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곤충사육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육된 곤충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가수분해방법을 이용한 이취 제거로 소비층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곤충을 이용한 대체육 등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위기에 의한 꿀벌 대량폐사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꿀벌 보급체계 구축을 위한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을 도내에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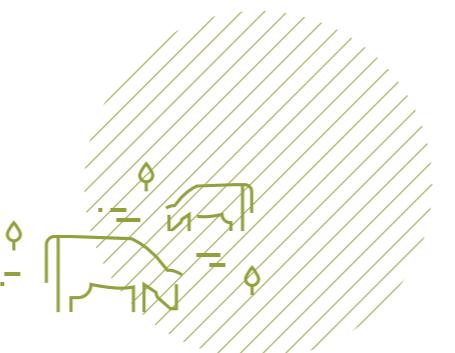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성산3길 67

1910년 설립된 축산 전문 연구기관, '축산연구소'

축산연구소는 1910년 발족한 전라남도 종묘장 축산부가 그 시초로, 1962년 전라남도 종축장으로 개칭한 후 2011년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로 개편되었다. 남도 답사 1번지 강진군에 위치하며, 기후변화와 시장개방 확대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기술 개발로 전남의 지속 가능한 축산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전남 축산업이 농업의 1등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축산연구팀과 축산환경팀, 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직과 일반직 등을 포함하여 현재 총 21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전국 최고의 한우 생산을 위한 우수 가축개량 및 사양 기술 개발, 전남 흑염소 우량계통 육성 및 브랜드화 기술 개발 등 산업화 연구, 악취 미생물 개발 등 축산농가 맞춤형 냄새저감기술 개발, 조사료 생산기술 다양화와 친환경 축산기술 체계화 등이 주요 연구이며, 지역 특색에 맞는 축산모델과 축산식품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 연혁

1910. 10
전라남도 종묘장 축산부로
발족

1931. 4
전라남도 축산시험장으로
독립

1962. 5
전라남도 종축장으로
개칭

1996. 1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
편입

2011. 1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로 개편



전라남도 축산업 현황

현재 축산업은 농업 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 주요 축종별 사육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한우우는 369만 3,779두(9만 1,481호)이며, 그중 전남은 63만 2,833두(1만 6,566호)로 전국 대비 17%를 차지해 사육순위 2위이다. 돼지는 전국 1,112만 4,000두(5,696호) 중 전남은 119만 4,000두(524호)로 사육순위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전남이 1934년부터 시작된 구제역 감시 관측 이래 지속적으로 청정지역이라는 명성을 지켜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전남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하여 동물복지 및 친환경축산물 생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동물복지 농장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축산물 인증 실적은 2022년 기준 전국 7,044호 가운데 전남이 1,756호로 25%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하였다. 축산연구소는 축산농가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전남 지역과 함께하는 농장 롤모델 개발을 위한 축산 연구를 꾸준히 추진 중이다.

축산연구소 향후 계획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육류(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섭취량은 53.7kg으로, 같은 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인 57.7kg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는 축산물이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식품이라는 의미로, 따라서 축산업이 국가 식량안보와 국민 건강에 필수불가결한 산업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축산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탄소중립 인식확산과 저감기술 개발, 시장 지향적 기술 개발로 축산업 국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다.

향후 축산연구소는 환경변화에 따른 탄소중립과 환경친화적인 스마트 축산업 전환 연구, 축산 악취와 분뇨 처리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장체감형 기술 개발에 매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특화작목인 흑염소

브랜드 육성을 위한 종합기술 개발과 전국 최고의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개량 및 사양기술 개발, 토종가축 유전자원 보존 관리 및 산업기반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축산환경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寶:

음력 5월 5일인 단오는 일 년 중 양기(陽氣)가 강한 날로 설날, 대보름,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 4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이날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을 준비하며, 나쁜 병을 예방하고 액운을 쫓기 위한 다양한 풍습이 전해집니다.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조선시대 임금이 신하들에게 단옷날 부채를 하사하였는데, 이처럼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며 주고받는 부채를 ‘단오선(端午扇)’이라고 합니다. 선조들의 지혜처럼 다가올 더위, 슬기롭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RAINBOW

농업寶 가치

Index

- 42 치 U 농 장 체 험 | 화순군 '허브뜨락'
- 46 마 을 기 업 탐 방 | 순천시 '순천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
- 48 귀농·귀촌 길잡이 | 귀농·귀촌인이 행복한, 희망찬 광양시
- 50 세계로 가는 K-농업 | 중국 동결건조 식품 시장동향
- 54 농 U P 테 크 | 전남 농산물 이용한 'K-콤부차' 개발 산업화
- 56 병 해 충 정 보 | 화훼·과수 병해충 방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경험하는 자연적인 치유 경험

화순군 '허브뜨락'

글·사진 | 정환정(작가)

치유는 의학지식과 약품, 시설이나 기구 등을 이용해 손상 및 질병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치료와 달리 인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자연스럽게 회복되어 가는 상태를 뜻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연스럽게'라는 대목이다. 효율 우선이 아닌 근원적인 부분을 돌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치유는, 그래서 가장 자연적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화순군 '허브뜨락'의 양영자, 김남순 부부가 강조하는 것처럼 말이다.

먼 곳에서 만난 비밀스러운 화원의 꿈

서울 강남에서 생활하던 양영자, 김남순 부부가 화순군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것은 23년 전인 2000년.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하던, 그리고 특수교육을 연구하고 강의하던 이들 부부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라지는 많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화순행을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정원을 가꾸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퇴근해 집에 오니 아내가 토지매매계약서 한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이 땅의 계약서였어요. 물론 그전에도 서울 인근으로 정원을 만들 부지를 보러 다니고는 했지만, 이만큼 멀리 떨어진 곳까지 오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1999년 말 어느 날의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회상하는 김 대표는 스스로를 “양영자 대표의 말씀을 충실히 수행하는 머슴”이라고 칭했다. 그만큼 ‘허브뜨락’의 기획과 운영에 있어 양 대표의 의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의미.

“어렸을 때부터 꽃과 나무를 참 좋아했거든요. 자연을 사랑하시던 부모님의 영향이 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나만의 정원,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피고 지고를 내내 반복하는 아름다운 뜰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었지요.”

현재 약 500종 이상의 수목이 자라고 있는 ‘허브뜨락’은 모두 부부가 직접 일구었다. 그 면적도 최초 약 2,600m²에서 현재 1만 5,900m²로 확장되었다. 물론 이 과정이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지금 다시 하라면 절대 못할 미친 일”이라며 웃을 정도로, 고되기 이를 데 없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부부에게 ‘허브뜨락’은 더없이 소중한 공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양 대표가 꿈꾸었던 혼자만의 정원은 23년이 지난 지금, 많은 이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 암 환우, 치매를 예방하고 싶은 노령층, 미래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 청소년들에게는 더더욱 활짝 열려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정원, 가장 아름다운 _____ 치유의 공간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는 여려 가지. 그래서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은 인간이 무엇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지 끊임 없는 토론과 연구를 이어왔다. 그중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는데, 그가 말한 쾌락은 향락을 기반으로 하는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평정인 상태일 때 깃드는 행복감을 뜻한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자유시민의 필수 교육 코스 중 하나였던 체육학교, 그리고 정원학교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이 중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쾌락을 경험하는 정원학교가 바로 에피쿠로스의 공간이었는데,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는 게 원칙이었지요. 그래서 귀족부터 노예까지 같은 공간에 모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함께 한 행위가 바로 정원을 가꾸는 것이었다고 하더군요.”

김 대표는 “제는 흔적도 남아 있지 않지만, 에피쿠로스가 만들었던 정원학교의 자리를 세 번이나 찾아갔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원을 통한 심신의 안정을 꾀하는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정원을 모든 이에게 개방했다. 더 많은 사람과 더 다양한, 그리고 깊은 치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였다.



길을 따라 걷게 되면 만나게 되는 _____

‘허브프락’을 둘러싸고 있는 꽃들은 흔히 볼 수 있는 종류도 있지만, 처음 보는 색 혹은 모양의 꽃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럴 때마다 발걸음을 멈추어도 지체된다고 등을 떠밀 사람은 없다. 원하는 만큼 서서 봐도 좋고, 오랫동안 그 향을 맡아도 좋다.

“산책로를 따라 888개의 침목을 깔고 그 위에 색을 칠했어요. 치매 예방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의 시각을 자극하고, 그를 통해 전두엽과 해마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일부러 경사를 만들어서 운동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노령의 방문객들은 “이렇게 좋은 곳은 생전 처음 봤다”라며 감탄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고 한다. 그럼으로써 지금까지의 삶, 원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소망들, 앞으로의 희망들을 새삼스레 되새기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참가자들의 성향 혹은 상황에 따라 더욱 극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자연과 교감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과 마음이 개방적으로 변해 그동안 꼭꼭 숨겨두었던 자신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꺼내놓게 된다. 그렇게 마음의 문제와 그로 인해 야기된 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게 양 대표의 설명이었다.

소중한 순간들

“치유는 소통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소통은 공통의 관심사를 통한 대화를 기점으로 시작되고요. 그래서 ‘허브프락’을 찾는 분들이 풀과 꽃과 나무, 그리고 자연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치유정원의 운영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하는 셈이겠지요.”

양 대표의 말에 김 대표가 당부를 보탰다.

“치유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기 마련입니다. ‘허브프락’만이 아니라 자연이 살아 있는 곳으로 가실 때는 그곳의 많은 것들과 소통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그곳이 누군가의 손길로 가꾸어진 곳이라면, 어떤 마음을 담아 지금까지 성장하고 유지되어 왔는지 숨은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한 치유 과정이 될 겁니다.”

소통과 치유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작은 정원 가꾸기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라는 ‘허브프락’. 그곳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생명과 함께하는 가장 아름다운 치유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중이다. ☺





고들빼기 하나로 주민과 꾸준한 수익 창출

순천시
'순천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뜻하는 '마을기업'.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전라남도 마을기업을 소개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행정안전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대상 기업을 매년 모집한다. 마을기업 지정을 바라는 법인을 대상으로 '1회차(신규)',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를 선정하는데, 선정된 마을기업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을 위한 사업비를 3년간 최대 1억 원(1회차 5천만 원, 2회차 3천만 원, 3회차 2천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마을기업 컨설팅 및 홍보와 판로 지원의 혜택도 있다. 순천시 '순천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3회차(고도화)'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Q '순천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2013년 법인을 설립했지만, 그 시작은 순천시 대표 특산물인 고들빼기를 테마로 2008년 녹색농촌체험 마을에 선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세척하고 포장하는 공정이라도 줄여서 농가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시작했지요. 현재 6차산업 인증과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으로서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하에 위생적으로 각종 고들빼기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Q 2022년에 '3회차(고도화)'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로부터 순천 고들빼기김치는 임금님께 진상될 정도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대표특산물인 고들빼기를 전국에 알리고자 법인명을 '순천 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이라고 지었는데요, 마을기업으로서 상품개발과 마케팅을 하고, 각종 규제에도 맞추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재배부터 가공, 체험, 마케팅까지 주민들의 단합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지요. 여기에 어려운 이웃과의 나눔도 꾸준히 실천했기에 선정된 것 같습니다.

Q 다른 마을기업과 비교해 '순천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만의 특장점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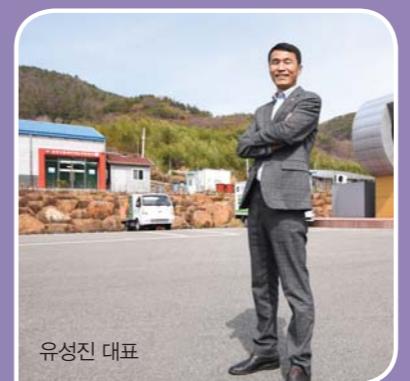
조합원의 열성적인 참여입니다. 특히 전현직 부녀회장님을 비롯한 부녀 회원들의 현신이 마을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었는데요, 가공, 체험, 식사, 숙박 등 모든 일이 조합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농업·농촌의 혁신을 주도하는 신지식인'으로 유성진 대표가 선정되었습니다. 순천시 대표특산물인 고들빼기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와 제품개발 등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지요.

Q 신지식인답게, 최근 고들빼기 주출물로 만든 '여행용 5종 세트 화장품'을 출시하셨지요?

고들빼기의 주된 효능으로 해열, 해독, 조혈, 소종 등이 있는데요, 고들빼기가 먹거리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동안 순천시,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와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특허등록된 항염증 관련 기술로 개발해 출시한 것이 '여행용 5종 세트 화장품'이에요. 샴푸, 린스, 미스트, 보디워시, 보디로션 5종으로 특별히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대표 관광상품이 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조금 더 성장해서 조합원의 복지와 주민을 위한 문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현재 연구, 개발 중인 고들빼기 기능성식품과 의약품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순천시와 전라남도에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기에 가능 하리라 확신합니다. 직원과 조합원에게 연금을 주는 기업,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기업, 새로이 시작하는 귀농인과 청년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기업으로 반드시 성장하겠습니다. ☺



유성진 대표

순천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은

지역특산물인 고들빼기로 고들빼기김치, 피클, 갓김치와 갓피클, 배추김치, 고들빼기환 및 화장품 등을 생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확대 등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개랭이'라는 브랜드로 각종 고들빼기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개랭이'는 순천시 별량면 개령마을의 옛 지명으로, 산골짜기 개울가에 자리한 마을을 뜻한다. 순천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의 인터넷 누리집인 '개랭이권역(www.rofoddl.com)'을 이용하면 제품 구매와 체험프로그램, 숙박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까운 로컬푸드와 낭도장터, 우체국쇼핑, 스마트스토어 등에서도 제품 구매가 가능하다.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개령1길 23

문의 061-745-4040



귀농·귀촌인이 행복한, 희망찬 광양시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지속 가능한 농업”
2023년 제26기 광양시 친환경농업대
2023. 3. 21. ~ 9. 26. © 광양시농업기술센터

광양시,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 주력

광양시는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젊고 유능한 신규 농업인력 유입 및 안정적 조기 정착을 돋기 위하여 적극적인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귀농·귀촌으로 전라남도에서 새로운 인생 설계에 도전하세요. 전라남도 시군별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출처 | 광양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정팀

귀농청년 창업농장 조성 및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만 18세~만 45세 미만 귀농청년에게 시설하우스 등 창업농장 조성비용 및 소형중장비 등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지원

영농정착 지원

독립영농경력 3년 이내인 만 18세~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독립영농기간에 따라 월 9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을 지원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만 18세~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승계한 부모세대의 영농기반 시설을 ICT 등 첨단시설 장비로 개선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청년농업인 상호 간 영농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를 위해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운영 및 활동 비용 지원

친환경농업대학 ‘청년농업반’ 운영

농업 비전, 영농기술, 국가기술자격증(종자기술자격증) 취득 등 교육을 통한 청년농업인 양성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경영실습 스마트온실을 조성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조성 완료 후 2025년부터 임차인 모집 및 운영

광양시는 한반도 남단 중앙에 있는 국가해양경영 전략상 요충지로서 동쪽으로는 경남 하동군, 서쪽과 북쪽은 전남 순천시와 구례군, 남쪽으로는 광양만을 사이에 두고 여수반도를 바라보고 있어 광양만, 진주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이유로 광양시는 영호남 양 지역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할 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조직 1읍, 6면 *면적 464.52km²

| 사업명 | 사업 내용 |
|-------------------------|--|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농업창업 300백만 원, 주택구입 75백만 원 대상: 귀농 5년 이내,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 내용: 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 선도농가·귀농인 현장실습 교육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예비 귀농인(귀촌인) 신규농업인에게 선도농업인으로부터 영농분야 등에 대한 기술습득, 정착과정 상담 등 지원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연수생: 월 80만 원 이내, 3개월 이내 선도농가: 월 40만 원 이내, 3개월 이내 |
|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대상: 참여 희망하는 타 시지역 거주 도시민 지원내용: 주거 및 연수프로그램 등 제공 |
| 귀농인 모임체 육성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광양시귀농어귀촌협회 사업비: 20,000천 원 지원내용: 동아리 활동, 선진지 견학, 워크숍 등 지원 |
| 귀농청년 창업농장 조성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청년 농업인(만 18세~만 45세 미만 귀농청년) 창업농장(시설하우스, 축사 등) 조성비용 25,000천 원 지원 |
| 귀농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청년 농업인(만 18세~만 45세 미만 귀농청년) 소형중장비 및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중장비: 최대 300천 원 농업용 드론: 1종(최대 3,300천 원), 2종(최대 2,500천 원) |
| 귀농어귀촌 창업활성화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5년 이내 귀농어귀촌인 또는 예비 귀농어귀촌인 사업비: 최대 30백만 원 지원 지원내용: 영농기반 등 창업비용 지원 |
| 귀농인의 집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류공간: 8개소 지원자격: 광양시로 전입하여 주택과 농지를 확보해 정착 하려는 자 주거 제공, 사용료 150천 원/월 |
| 귀농·귀촌 멘토·멘티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귀촌 체험마을에 이주한 신규농업인이 정착하는데 필요한 현장실습 교육 지원 마을리더: 월 40만 원 한도(최대 3개월) 예비 귀농인: 월 20만 원 한도(최대 3개월) |
| 귀농·귀촌 영농정착 기술교육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귀촌인 또는 예비 귀농·귀촌인 귀농 컨설팅, 코칭 및 영농설계 요령,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 등 |
| 귀농·귀촌인 동네작가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귀촌 관련 정보 제공 등 SNS 활동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 원고료 콘텐츠 1건당 5만 원, 월 15만 원 한도 |
| 귀농·귀촌 체험마을 어울림 행사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귀촌 체험마을 어울림 행사를 위한 소요비용 지원 최대 5,000천 원 지원 |

문의: 광양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정팀 (061-797-2883)



중국 동결건조 식품 시장동향

글 | 중국 칭다오무역관

시시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이슈와 전 세계 128개 해외무역관이 수집한 시장정보 중에서 전라남도 농업 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농업 관련 해외시장 뉴스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전합니다.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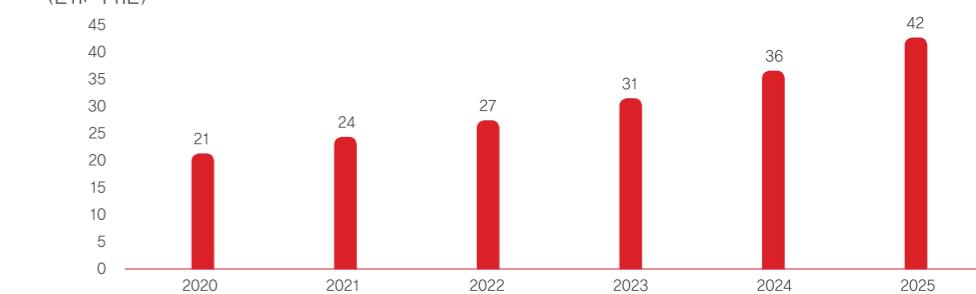
중국 동결건조 식품 시장규모 확대

중국 소비자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자 수요가 다변화됨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동결건조 식품이 점점 더 많은 소비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동결건조 식품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는 동결건조 식품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유통기한이 길어 사람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봉쇄에 대비하기 위해 구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동결건조 식품은 진공동결건조 식품의 약칭으로 FD(Freeze Drying) 식품이라고도 한다. 동결건조는 얼음을 승화시켜 수분을 제거하여 건조물을 얻어내는 방법으로, 동결건조 공정으로 만든 식품은 색·향·맛·형태를 모두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단백질 등 영양소를 보존할 수 있다. 동결건조 기술은 원재료 90% 이상의 영양소를 유지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영하 30~40도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만큼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음식의 상한 부분에 미생물 등이 번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중국 동결건조 식품 시장규모는 2020년 21억 위안에서 2025년 42억 위안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0~2025년 중국 동결건조 식품 시장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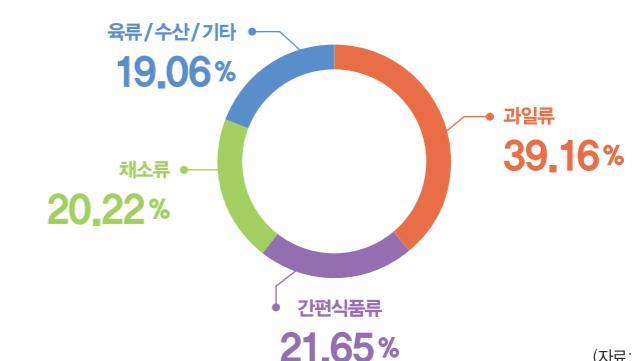
(단위: 억 위안)



(자료: 체엔잔(前瞻)산업연구원)

동결건조 식품 종류를 살펴보면 과일류 동결건조 식품이 동결건조 식품의 39.16%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2위는 21.65%를 차지한 간편식품이며 채소류(20.22%), 육류·수산(19.06%)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중국 동결건조 식품 종류별 분포



(자료: 관엔보고(观研报告))

동결건조 식품 시장의 주요 기업들

중국의 주요 동결건조 식품기업으로는 량핀푸즈(良品铺子), 바이차오웨이(百草味), 쌘츠송슈(三只松鼠), 라이이펀(来伊份) 등이 있다. 그중 량핀푸즈는 스낵 및 동결건조 식품업계 선두 기업으로 중국 전역에 2,0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주요 간식 및 동결건조 식품브랜드

| 브랜드명 | 브랜드 이미지 | 소속회사 | 등록자본 | 설립연도 |
|-------------|---|---------------|-------------------|-------|
| 량핀푸즈(良品铺子) |  良品铺子 BESTORE | 량핀푸즈주식유한회사 | 4억 100만 위안 | 2006년 |
| 바이차오웨이(百草味) |  百草味 | pepsico중국유한회사 | 1,680만 달러 | 1988년 |
| 쌈츠송슈(三只松鼠) |  三只松鼠 Three Squirrels | 쌈츠송슈주식유한회사 | 4억 100만 위안 | 2012년 |
| 라이이펀(来伊份) |  来伊份 LYFEN | 상하이라이이펀주식유한회사 | 3억 3,679만 6,900위안 | 2002년 |

(자료: 화징(华经)산업연구원)

다양한 분야의 기업 진출

최근 몇 년간 중국 동결건조 식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여러 기업이 동결건조 식품 시장에 진출하였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샤오미오우핀(小米有品)은 동결건조면 제품을 선보였고, 커피 스타트업인 쌈뜻반(三顿半)도 동결건조 인스턴트커피 파우더를 출시해 인기를 끌고 있다. 쌈뜻반은 3년 연속 티몰 광군절(11.11) 판촉기간에 커피 판매 1위를 차지했으며, 2021년 광군절 매출액은 약 1억 3,000만 위안으로 2위의 1.5배를 기록하였다.

동시에 하오샹니(好想你), 이리(伊利)를 포함한 중국 전통 식품회사가 동결건조 식품 시장에 진출하였다. 하오샹니 그룹은 2017년에 동결건조 식품 시장에 진출하였고 그 해 동결건조 영양브랜드인 칭페이페이(清菲菲)를 출시하였다. 칭페이페이는 2022년 6월까지 3,529만 잔을 판매해 3억 위안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또한 2021년 하오샹니 그룹은 알리바바와 공동으로 동결건조 스낵브랜드인 샤오동량(小冻粮)을 출시했는데, 이 제품은 출시된 지 1년 만에 티몰 단일 매출액이 1,000만 위안을 넘어 스낵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다.

중국 대형 식품기업이 출시하는 동결건조 식품

| 브랜드 | 제품명 | 이미지 | 가격 |
|----------------|----------|---|---------------------|
| 칭페이페이 (清菲菲) | 동결건조 영양품 |  | 38.7위안 / 105g / 7봉지 |
| 샤오동량 (小冻粮) | 동결건조 과일 |  | 39위안 / 35g / 2갑 |
| 이리 (伊利) | 동결건조 요거트 |  | 26.6 위안 / 40g / 1갑 |

(자료 : 징동(京东))



신층 식품기업의 동결건조 식품 시장 진출

동결건조 식품을 핵심 제품으로 하는 메이샨숴(每鲜说) 브랜드는 2021년 3월 티몰에 동결건조 식품을 선보이자마자 수백만 위안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2022년 메이샨숴는 3개의 신제품 시리즈를 출시했으며, 그중 smoothie(思慕雪) 시리즈 제품은 출시 한 달 만에 티몰 smoothie 제품 1위로 올라섰다. 아울러 메이샨숴의 동결건조 과일제품은 현재까지 중국 동결건조 시장에서 유일한 무설탕 식품으로, 2022년 월간 평균 판매량이 10만 건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21년 설립된 쉐이타둔둔(水獭吨吨)은 중국 최초로 즉석 동결건조 과일차를 출시하였는데, 동결 건조 기술을 통해 '물 한 잔으로 즉석 과일차 만들기'가 가능함을 선보였다. 2022년 5월까지 쉐이타둔둔은 1,800만 잔이 판매되어 티몰 6.18 판촉기간에 동결건조 음료 판매량 1위를 기록하였다.

신층 식품기업 동결건조 식품 출시

| 브랜드 | 제품명 | 이미지 | 가격 |
|-----------------|----------|--|-------------------|
| 메이샨숴 (每鲜说) | 동결건조 과일 |  | 32.9위안 / 50g / 1개 |
| 쉐이타둔둔 (水獭吨吨) | 동결건조 과일차 |  | 79위안 / 15g / 6개 |

(자료: 징동(京东))

시사점

현재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동결건조 식품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도 과일, 채소 등 간단한 제품 위주에서 영양제, 커피, 차 등 프리미엄 제품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동결 건조 식품의 가장 큰 장점은 식품 영양소를 95%까지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식품 본래의 영양분이 얼마나 많은지는 생과일의 성숙도와 신선도에 달려 있는데, 기업이 생산지에 가공공장을 설립할 경우 식품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동성 동결건조 식품 판매업체 담당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동결건조 식품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한 이유는 '집콕경제'의 대중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강한 음식, 간편한 음식에 대한 젊은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결건조 식품은 영양과 편리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젊은층 요구를 충족 시킬 수 있다. 제품별 동결건조 식품 판매량을 보면 동결건조 딸기·두리안·요구르트가 TOP3를 차지하고 있다. 동결건조 식품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건강하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젊은층 수요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야 하며, 수시로 변화하는 소비자 취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제품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자료: 체엔잔(前瞻)산업연구원, 관엔보고(观研报告), 화징(华经)산업연구원, 징동(京东), 칭다오무역관 자료 종합



전남 농산물 이용한 'K-콤부차' 개발 산업화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정아영 연구사

기능성 농식품, 농작물 신제품 등 농가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농업정보를 소개합니다.



콤부차(Kombucha)는 녹차, 흥차와 같은 차 추출물에 설탕과 스코비(SCOBY)라고 일컫는 복합 미생물로 발효한 음료이며, 다이어트와 간 기능 개선 등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고 알려져 최근 탄산음료와 알코올성 음료를 대체할 건강음료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5년간 콤부차의 인기가 증가하였는데, 대중화를 위한 콤부차의 발효, 숙성 등 제조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산업적 생산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콤부차 생산판매를 희망하는 도내외 산업체의 기술수요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에 착수하였다. 이후 4년간의 연구를 통해 RTD¹⁾ 음료, 분말 소재화, 다이어트 식품 등 다양한 콤부차 가공기술을 개발하였고,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산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상품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고 즉각적인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구축했으며,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1) RTD(Ready-To-Drink): 뚜껑만 열면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용기에 담긴 음료

우리 지역 농산물로 새롭게 만나는 콤부차

콤부차는 발효 중 생성되는 다양한 성분으로 인해 향미가 결정되는데, 특히 첨가된 재료와 미생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품질 관리가 어렵고, 이 부분이 대량생산을 위한 기술적인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한국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국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제조기술 정립이 필요하였다. 이에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RTD 콤부차 음료 제조에 적합하도록 발효 및 숙성조건을 구명하였다. 주요 개발 내용 중 흥차와 비트를 동시에 추출한 발효공법은 음료의 산미와 적색도 증진 효과가 있어 특히(발효균을 이용한 흥차 및 비트 콤부차 음료의 제조방법)로 등록되었고, 도내 업체에 유상 기술이전을 하였다. 또한, 녹차 발효액에 유자즙을 첨가 후 저온숙성하는 향미 증진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전남 대표 콤부차 브랜드인 '아따(ATTa)콤부차'로 상품화 및 시장진입에 성공하였다. 해당 상품은 뛰어난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올해 개최되는 전남체전 공식음료로 선정되었다.

'아따(ATTa)콤부차' 네이밍

- ①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AnyTime To Anywhere): 알코올 부담 없이 남녀노소 마실 수 있는 음료의 의미를 내포
- ② 전남의 방언(아~따!): 전남의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맛이 매우 좋다는 감탄사의 의미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는 콤부차

우리나라 콤부차 시장의 80%는 물에 타서 마시는 분말형 콤부차 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콤부차 음용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제품 대부분이 수입산 콤부차 분말을 사용하고 있어 국산 콤부차 분말소재화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유기산의 조성과 함량이 풍부하고 생산수율이 높은 콤부차 분말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콤부차 발효액을 이용한 콤부차 건조분말의 제조방법) 하였으며, 산업용 분무건조기를 이용하여 대량생산 실용화 테스트를 완료하고 도내 업체에 기술이전을 마쳤다.

콤부차 분말은 밤포정, 스틱형 음료믹스 등 신속편이음료 형태로 제품화하고자 레시피 개발을 마친 상태이다. 특히 스틱형 음료믹스는 전남 특산물과 기능성 원료를 배합함으로써 유자맛(체지방 감소, 피부 건강), 블루베리맛(근력 개선, 긴장 완화), 매실맛(소화 능력, 피로 개선) 등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제품 3종을 개발하였다. 또한 분말 형태뿐만 아니라 농축하여 만든 액상 소재를 연구한 결과, 콤부차 농축액을 이용한 리코타치즈 제조기술을 개발하였다. 해당 기술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콤부차 활용 유가 공품을 연구한 사례로서 주목받았다.



다이어트 스낵으로 변신한 콤부차

콤부차의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알려지면서 소비자의 주요 구매요인이 되었고,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러한 시장현황을 반영하여 콤부차의 기능성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연구를 추진하였다. 여러 종류의 콤부차 발효액과 원재료 추출물의 3T3-L1 지방 세포 저감활성을 평가한 결과, 흥차 콤부차 발효액을 세포에 처리 시 지방세포 분해 관련 유전자와 효소 발현도가 증가하며, 지방 분해산물인 글리세롤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경의 경도·탄력성이 증가하고 생리활성과 기호도가 우수한 워터젤리 제조조건을 개발하고, 특히(지방저감활성이 있는 콤부차 발효액을 첨가한 젤리조성을 및 이의 제조방법) 출원하였다. 'The Real 콤부차 워터젤리'는 흥차 추출물과 흥차 콤부차 발효액이 95% 이상 함유되어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시제품으로 호평받았는데, 칼로리는 낮고 섭취 시 포만감이 있어서 체중조절을 위한 다이어트 스낵으로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차산업연구소,
'K-콤부차' 시대를 열다

정아영 연구사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의 정아영 연구사는 "기술개발 및 실용화 테스트를 거쳐 상품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로 인해 콤부차 연구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미래에 콤부차 시장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더 핵심이 되는 원천기술 개발에 주안점을 두면서 내실 있는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콤부차의 발효 미생물과 관련한 연구를 추진 중이며, 향후 재료 부터 제조공정, 제품까지 온전히 우리 만의 기술로 만든 'K-콤부차' 시대를 열어나갈 각오이다.





화훼·과수 병해충 방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영농 현장에 도움이 되고자 병해충, 농약, 작목 정보 등 농작물 병해충 관련 정보를 도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기에 방제될 수 있도록 병해충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화훼

수국 대만총채벌레

피해와 진단

- 개화 전 생장점을 기해하여 신초의 어린잎이 위축
- 피해가 심하면 신초를 포함하여 기형이 되면서 위축
- 7월 하순까지 청색점착트랩, 8월부터는 황색에 유인이 잘 됨
- 휴대전화를 끄고, 액정화면에 꽃을 털면 쉽게 관찰 가능

형태

- 대만총채벌레 암컷의 몸길이는 1.3~1.7mm로 몸 색깔은 갈색 또는 암갈색
- 수컷은 몸길이가 1.0~1.2mm로 암컷보다 크기가 작으며, 몸 색깔은 일정하게 황색을 띠므로 육안으로 보면 다른 종으로 오인하기 쉬움

발생생태

- 무기온 시설하우스에서 4월 상순부터 11월 상순까지 지속 발생
- 발생 최성기는 6월 중순, 9월 하순부터 10월 상·중순까지 소 발생

방제

- 방제방법은 발생 초기인 5월 상순에 적용약제를 살포해야 효과
- 등록약제: 디노테퓨란 수화제, 아세타미프리드 수화제

증상



대만총채벌레 성충(암컷)

수국 치응애

피해와 진단

- 생육 초기부터 발생, 주로 잎 뒷면에 기생
- 피해가 심하면 신초 신장이 불량하고, 잎이 작으며 황변
- 밀도가 높은 경우 잎끝으로 뭉쳐지고, 바람에 날려 분산

형태

- 암컷 성충은 0.4mm, 수컷 성충은 약 0.3mm, 몸 측면에 불규칙한 검은 무늬

발생생태

- 주로 생육 초기부터 발생하고, 5월 하순이 발생 최성기
- 고온기에는 발생이 거의 없고, 생육 후기에는 소 발생

방제

- 시설재배의 경우 3월 상순부터 예찰, 잎당 1~2마리 시 방제
- 등록약제: 아미트라즈 유제, 밀베멕틴 유제, 비페나제이트 액상수화제, 아버멕틴 유제



성충



집중 발생

수국 흰가루병

피해와 진단

- 초기: 잎에 흰색의 작은 반점이 생기며, 새로운 잎으로 전염
- 후기: 전체 줄기로 확대되면서 생육이 불량

발생환경

- 일교차가 크고 습한 조건에서 많이 발생
- 질소비료를 많이 사용한 경우에 많이 발생
- 5월 상순 개화기, 9월 하순부터 월동기 전에 발생

방제

- 시설재배의 경우 지나치게 습하지 않도록 관리, 통기성 개선
- 방제적기: 5월 상순, 9월 하순~10월 상순
- 등록약제: 폴리옥신비 수화제, 디페나코나졸 유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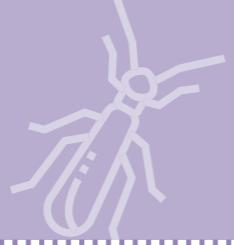


발병 초기



발병 후기





• 과수

갈색날개매미충

피해와 진단

- 어린가지 속 산란에 의한 고사, 배설물에 의한 그을음병 유발 → 광합성 방해 및 상품성 하락
- 어린벌레와 어른벌레가 식물체로부터 양분 흡즙으로 생육 저해
- 심할 경우 낙엽 또는 낙과 유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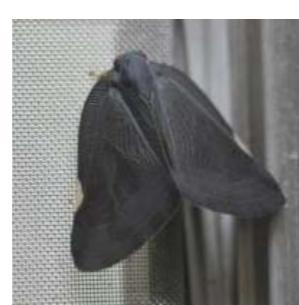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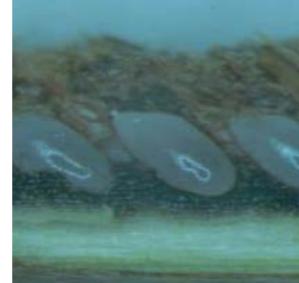
- 알: 유백색 장타원형, 길이 1.24mm, 1년생 가지 속에 산란
- 어린벌레: 유백색 또는 노란색, 항문 주변에 흰색의 밀랍물질을 부채처럼 펼치고 있음
- 어른벌레: 흑갈색, 암컷은 꿩무니에 줄기를 팔 수 있는 1쌍의 텀니 모양 갈고리를 접고 있음

발생생태

- 2010년 국내 처음 발생, 전국으로 발생지역이 확대됨
- 연 1세대 발생, 목본류의 1년생 가지 속에서 알로 월동
- 생활사: 가지 속에서 알로 월동 → 5월 상순에 알에서 깨어남(4회 탈피) → 7월 상순 어른벌레, 과수원과 산림에서 섭식 → 목본류 1년생 가지 속에 산란(8월 상순), 25~30개/알 덩어리 → 11월 중순 어른벌레 죽음
- 기주식물: 총 51종 이상, 가죽나무, 때죽나무, 산수유 등 선호

방제

- 어린벌레: 5월 하순, 어른벌레: 8월 상순부터 주기적 방제
- 기주범위가 넓고 주 서식처가 산림이기 때문에 방제 시 인근 산림을 동시에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
- 유기농업 자재로는 고삼, 데리스(Derris), 님(Neem), 제충국 추출물 등을 사용, 단 사용할 때는 1,000배 정도 희석하여 사용
- 등록약제: 델타메트린 유제, 아바멕틴.플로니카미드 입상수화제, 아세타미프리드.루페뉴론 액상수화제, 아세타미프리드.뷰프로페진 액상수화제, 아세타미프리드.비펜트린 입상수화제 등



어린벌레 집단서식

산란 중인 어른벌레

미국선녀벌레

피해와 진단

- 어린벌레와 어른벌레가 신초에서 양분을 흡즙, 심하면 낙엽
- 흰색의 밀랍물질이 바람에 날리며, 조경수의 외관 손상
- 배설물 분비에 의한 그을음병 유발, 광합성 저해, 상품성 하락

형태

- 알: 크기 1mm, 방추형인데 유백색
- 어린벌레: 8mm, 연녹색이지만 백색 밀랍물질로 덮여 있음
- 어른벌레: 10mm, 앞날개는 연한 흑색으로 부정형의 검은색 반점이 있으며, 항상 날개를 접고 있음

발생생태

- 연 1세대 발생, 알로 월동하여 5월 상·중순쯤에 부화
- 부드러운 잎이나 새 가지에서 양분 흡즙
- 어린벌레는 백색 밀랍물질을 분비하여 가지나 잎에 남기므로 발생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어린벌레는 7~8월경 어른벌레가 됨
- 암컷 어른벌레는 9월에 가지의 껍질 속이나 표피에 산란
- 기주식물: 아까시나무, 감나무, 밤나무, 배나무, 인삼 등

방제

- 월동 알의 부화가 완료되는 6월 상순경에 적용약제 살포
- 어린벌레와 어른벌레가 과수원으로 유입되는 초기에 약제 살포
- 등록약제: 감마사이 할로트린 캡슐현탁제, 델타메트린 유제, 디노테퓨란 수화제, 디노테퓨란 입제, 디플루벤주론.설포시플로르 입상수화제 등



어린벌레

어른벌레

감 등근무늬낙엽병

피해와 진단

- 잎에 흑색의 둥근 반점 형성 → 병반이 확대되면서 내부는 담갈색 또는 적갈색을 띠고, 병반의 테두리는 흑자색임
- 발병이 심할 경우 조기낙엽 및 낙과로 수확 불가능

발생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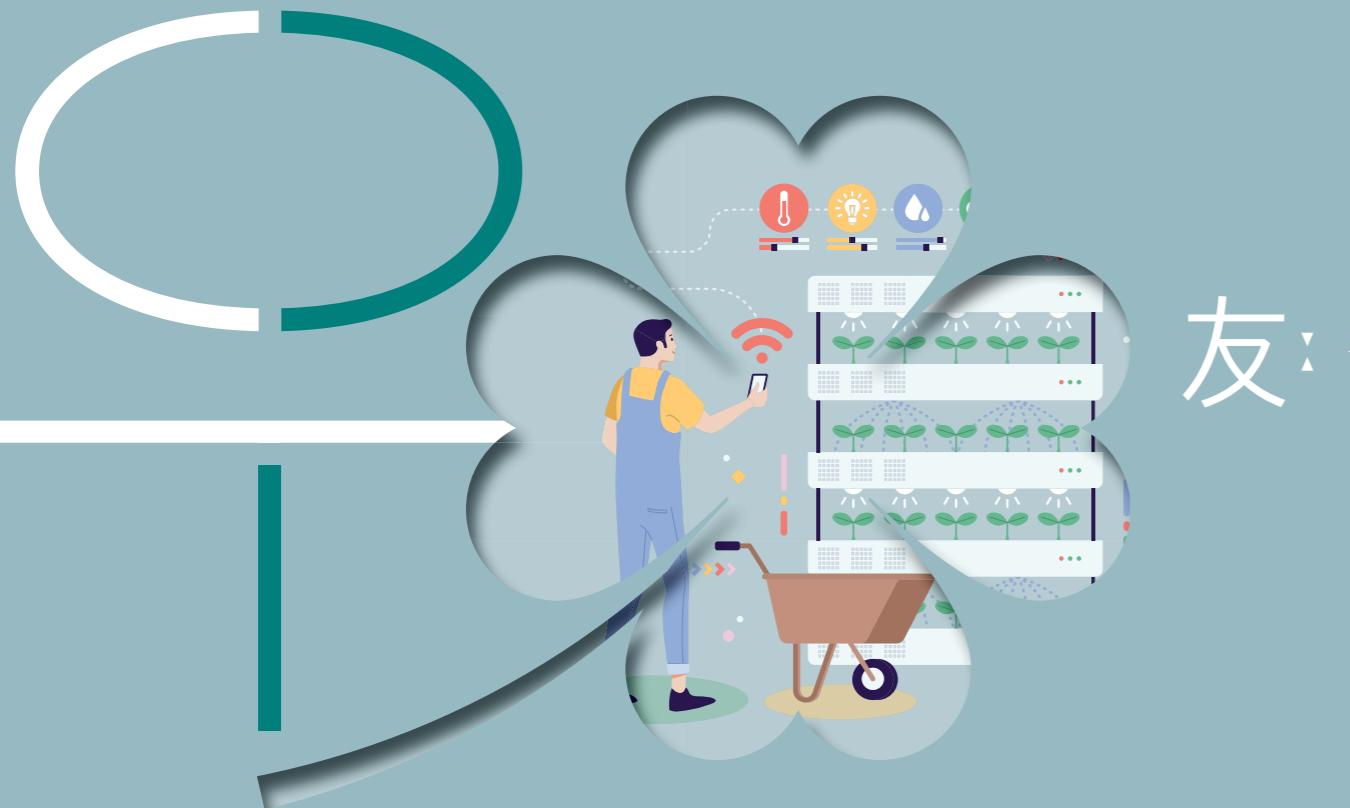
- 병든 잎이나 과일에서 군사 또는 자낭각의 형태로 월동 후 자낭포자가 날아가 전염원이 됨
- 감염시기는 5월 중순부터 6월 하순, 잠복기가 60~120일 정도이며 9월 상순부터 10월 상순에 발병

방제

- 1차 전염원인 병든 잎을 철저히 제거
- 수세가 약하면 발병이 심하므로 적절한 비배관리를 잘하여 수세와 지력을 좋게 관리
- 비 온 후 자낭포자가 많이 날리므로 주기적 약제방제
- 약제방제 시기는 5월 중순부터 7월 상순까지 10일 간격, 잎 뒷면에 약이 충분히 묻도록 강우 후에 살포
- 신초정지기인 6월 하순 이후 액상유황 250~300배액을 살포
- 등록약제: 디메토모르프, 메트코나졸 액상수화제, 디티아논 수화제, 디티아논.크레속심메틸 액상수화제, 디티아논.플룩사피록사드 액상수화제, 디페노코나졸 수화제 등



기성 제품처럼 동일하게 대량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어 생산하는 것을 뜻하는 ‘비스포크(Bespoke)’가
최근 가전 및 전자제품 시장에서의 트렌드입니다.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제품은 농업에서도 필요합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매할 때 중요시하는 요인은
‘건강(51.5%)’, ‘안전(28.1%)’, ‘먹기 편리함(9.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면, 새로운 수요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友:

RAINBOW

농업友생활

Index

- 62 농업 트렌드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펫푸드’ 연구 개발
- 64 농업 재정 | 전라남도의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66 안전과 건강 365 |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요령
- 70 농업 인 교육 | 7월·8월 교육 일정
- 74 JARES 뉴스
- 78 독자 마당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펫푸드’ 연구 개발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기능성 사료 연구 개발 현황을 살펴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월에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5.4%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뜻이다. 조사 결과,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75.6%가 ‘개’를 기르고 있었고, ‘고양이’ 27.7%, ‘물고기’ 7.3% 순이었다.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수만큼 반려동물 시장 규모도 확대 중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가 2027년에는 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도 반려동물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반려동물용 식품인 ‘펫푸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풀무치를 이용한 고단백 기능성 사료

메뚜기과인 풀무치는 전체 성분 중 단백질이 70% 이상이고, 반려견의 모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과 지방,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어 응용범위가 넓은 곤충이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풀무치의 기능성분 분석과 가공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감칠맛의 대표 물질인 글루탐산과 피부재생 효과가 있는 프롤린, 신경안정에 도움을 주는 발린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것을 구명하였다. 풀무치 분말을 첨가한 반려견 사료는 노령견용, 모질 개선용 등 다양한 기능성 용도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비파잎과 참다래를 활용한 기능성 사료

전남지역에서 재배되는 비파잎과 참다래를 활용해 반려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사료도 개발하였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비파잎에서 카테킨을 추출하여 실험한 결과, 체지방이 3%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고 반려견의 비만 방지를 위한 다이어트 기능성 사료에 비파잎을 이용하였다. 또한, 참다래는 피부발진 완화 및 텔 재생 촉진 기능이 있어 반려견의 알레르기 예방 기능성 사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곤충 장내 미생물을 활용한 기능성 반려견 간식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거저리류의 장내에 서식하는 혈당 개선, 내산성 단백질 효소 분해, 항비만 효과가 있는 유용 미생물 5종을 분리하였으며, 반려견의 구강에 존재하는 치석 생성균을 억제할 수 있는 치석 생성균을 억제할 수 있는



분말 첨가 반려견 저기(육포)

곤충 유래 미생물을 첨가한 반려견 덴탈스틱을 개발하였다. 기능성 덴탈스틱은 반려견의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며, 곤충사육농가의 곤충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펫푸드 ‘치즈볼’ 만들기

재료

닭가슴살 200g, 두부 50g, 쌀가루 15g, 당근 20g, 오트밀 7g, 무염 코티지치즈 200g, 코코넛 가루 20g
※ 두부는 데쳐 물기를 빼서 사용하세요.



만드는 방법

- ① 닭가슴살과 당근은 곱게 다져주고, 두부 물기를 빼줍니다.
- ② 닭가슴살에 두부, 쌀가루, 당근, 오트밀을 넣고 치대어 줍니다.
- ③ 반죽을 비슷한 크기로, 10개의 덩어리로 나누어 줍니다.
- ④ 반죽 한 덩이에 치즈 20g씩 채워 동그랗게 만들어 팬팅 합니다.
- ⑤ 오븐 170도, 20분 구워줍니다. (크기에 따라 시간 조절)
※ 찜기를 이용하면 촉촉한 치즈볼을 만들 수 있지만, 수분이 많아 빠르게 급여해야 합니다.

전라남도의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전라남도가 더 좋게 달라집니다. 2023년 전라남도 농림·축산 분야의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 농업 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와 시책을 살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청 친환경농업과와 농식품유통과, 축산 정책과에 문의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생태마을 사무장 지원

(유형: 신규사업)



유기농생태마을의 운영 내실화 도모를 위해 체험·홍보·운영 등 역량을 갖춘 유기농생태 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사업취지 친유기농생태마을의 먹거리, 볼거리, 체험·관광 정보, 관람객 유치 등 마을의 체계적인 관리로 유기농업 확산 및 농촌 활력 증진

핵심내용 유기농생태마을 운영·관리·홍보에 따른 사무장 인건비 지원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2년 말 기준 도내 유기농생태마을로 기 지정된 마을 중 사무장을 채용한 마을에 지원합니다.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받고 있을 경우, 유기농생태마을 사무장 지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유기농생태마을 운영·관리·홍보에 따른 유기농생태마을별 사무장 1인 인건비 50만 원/월(자부담 10만 원 포함)을 지원합니다.

사무장 채용 요건 및 역할은 무엇인가요?

- **요건:** 전남 유기농생태마을로 사무장 지원을 희망하고, 시군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마을로 향후 관광객 유치 등 실적이 있는 마을
- **역할:** 체험프로그램 운영, 행사기획, 고객관리, 홍보, 사무관리, 농·특산물 판매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기농생태마을 대표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정책팀(061-286-6322)

식품 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

(유형: 신규사업)



식품제조업체의 가동률 제고를 위해 신규 위탁 생산 시 소요되는 동판제작비, 포장지 구입비 등을 지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사업취지 평균 가동률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식품제조업체의 경영난 해소

사업내용 도내 식품제조업체에 신규 위탁생산 시 소요되는 동판 제작비, 포장지 구입비 등 지원(개소당 10,000천 원 이내)

* 총사업비: 600백만 원(도비 300^{50%}, 시군비 120^{20%}, 자부담 180^{30%})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청자격)

전라남도 내에 있는 수탁업체(식품제조업체)와 2023년 1월 이후 위·수탁 계약체결 및 신규 제품을 위탁생산하는 업체, 2023년 내에 계약을 체결할 위탁업체

* 보조사업자는 위탁업체이며 전라남도 외의(경기도, 광주 등) 위탁 업체도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인: 본인
- 신청장소: 전라남도 내에 있는 수탁업체 관할 시군청 농업부서에 신청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문의 농식품유통과 농촌융복합산업팀(061-286-6433)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지원

(유형: 변경사업)

축산 지붕에 열차단재 도포로 태양열 반사 효과를 통한 축사 내부 온도 하강으로 고온기 가축 폐사 피해 최소화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주요 내용

"?"
지원비율 상향

50%

증전

"?"
지방비 지원

70%

변경

"?"
지방비 지원

55%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축사 지붕 면적당 850원/m²로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비율: 도비 15%, 시군비 55%, 자부담 30%

지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1순위: 중소 규모 농가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 2순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농가
- 3순위: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 또는 깨끗한농장 지정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장소: 축사 소재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청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축산업 허가증, 우선순위 관련 서류 등

문의 축산정책과 축산정책팀(061-286-6524)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요령

농작물 침수, 쓰러짐, 낙과, 시설물 파손 등 여름철 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작물과 농업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농작물 생육 불량, 과수 열매 터짐, 병해충 발생 증가 등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요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안전관리요령을 알아봅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사로 '이달의 농업기술'

• 벼

사전대책

-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점검하고 정비한다.
- 배수로 잡초 제거 및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여 원활한 물 빠짐을 유도한다.
- 집중호우 예보 시 미리 논두렁에 물꼬를 만들고 비닐 등으로 피복하여 붕괴를 방지한다.
- 논물걸러대기, 중간물떼기 등으로 뿌리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사후대책

- 침·관수된 논은 서둘러 잎끌만이라도 물 위로 나올 수 있도록 물빼기 작업을 실시하고, 물이 빠진 후에는 새물걸러대기로 뿌리의 활력을 촉진시킨다.
- 건풍에 의한 백수피해가 우려되면 6시간 이내에 10a당 물 600ℓ 이상을 지상부가 젖을 정도로 뿌려준다.
- 쓰러진 벼는 바로 일으켜 세워 통기·광투과정 향상으로 수발아를 방지한다.
- 조생종 등 수확기에 쓰러진 벼는 조기 수확을 실시한다.
- 침·관수된 논은 도열병, 흰잎마름병 및 벼멸구 등 병해충에 대비하여 방제한다.

• 침·관수 벼 흙양금 및 오물세척 효과(감수율)

| 생육시기 | 1~2일 | | 3~4일 | |
|----------------|----------|---------|----------|---------|
| | 방치 → 세척 | 방치 → 세척 | 방치 → 세척 | 방치 → 세척 |
| 유숙기(이삭팬 후 10일) | 30 → 16% | | 40 → 20% | |
| 호숙기(이삭팬 후 20일) | 20 → 11% | | 30 → 16% | |
| 황숙기(이삭팬 후 30일) | 5 → 3% | | 10 → 5% | |

*침수: 식물체의 일부가 물에 잠기는 상태/관수: 식물체의 전체가 물에 잠기는 상태



• 밭작물

사전대책

-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습해를 예방한다.
- 콩, 참깨 등 밭작물의 주요 병해충 예방 약제를 살포한다.
- 참깨는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하여 쓰러짐을 방지한다.

사후대책

- 조기배수, 쓰러진 농작물 세우기, 걸흙이 씻겨 내려간 포기는 흙을 보완한다.
- 생육이 불량한 포장은 요소비료(0.2%액)를 엽면시비한다.

• 원예작물(채소·과수)

사전대책

- 배수로를 깊게 파서 습해를 방지한다.
- 피복한 비닐이 날리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땅에 고정한다.
- 밀식재배 과원에서는 철선지주를 점검하여 선의 당김 상태를 확인하고, 가지를 자주시설에 묶어준다.



• 축산

사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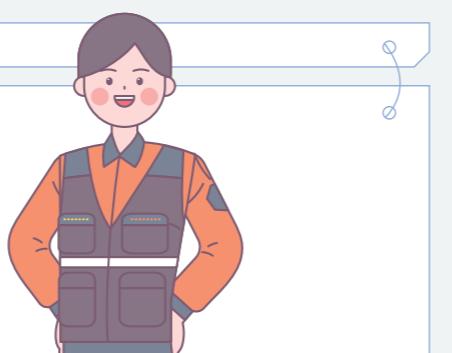
- 붕괴 위험이 있는 축대 보수 및 축사 주변 배수로를 정비한다.
- 원치커튼, 환기팬, 차광막 등 시설물 및 누전 방지를 위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사료는 비에 젖지 않도록 보관한다.
- 분뇨처리장 침출수 방지 및 외부에 노출된 분뇨에 비바람의 유입을 차단한다.

사후대책

- 충분한 환기 및 수시로 분뇨를 제거하여 유해가스 발생을 예방한다.
- 젖은 풀이나 변질된 사료를 주지 않도록 하여 고창증을 예방한다.
- 축사 침수 시 가급적 빨리 배수하고, 축사 안팎을 청소한 후 소독을 실시한다.
- 전염병 발생 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에 즉시 신고한다.

익히고 실천하는 심폐소생술

CPR



• 농업시설물

사전대책

- 하우스 주변 배수로 정비, 치마비닐 등을 점검 및 보수하여 물 유입을 방지한다.
- 비닐이 펄럭이지 않도록 하우스 끈을 당겨두고 나뭇가지, 유리조각 등 하우스 주변을 정리한다.
- 비닐 교체 예정이거나 작물이 없는 하우스는 비닐을 미리 제거한다.
- 서까래와 도리, 기둥과 중방 등 연결 이음부 등의 결속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한다.
- 서까래 중앙부에 보조지지대 설치 및 하우스 벽면 브레이싱(가새)을 설치한다.
- 환기팬이 설치된 경우 팬을 가동하여 비닐하우스가 들뜨는 것을 방지한다.

사후대책

- 작물이 침수된 경우 하우스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여 신속하게 물을 뺀다.
- 깨끗한 물로 작물 및 기자재 등을 씻어주고 병해충 방제를 실시한다.
- 피해 상황을 시군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고 복구 지원을 요청한다.

• 농업기계

사전대책

- 농기계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한 후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기름칠해 보관한다.
- 야외 보관 시에는 방수포장으로 잘 덮고 바람에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한다.

사후대책

- 침수된 농기계는 절대 시동을 걸지 말고, 흙탕물이 들어간 엔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해 수리한다.
- 엔진오일, 기어오일 등 각종 윤활유와 연료를 비롯하여 공기청정기, 연료여과기, 손상된 전기배선 등을 새것으로 교환한다.

※ 안전사고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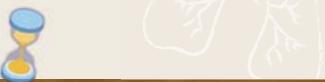
- 집중호우 시 저지대·상습 침수지역은 대피 준비를 하고, 고압전선(가로등, 신호등) 등 위험시설 근처에 가지 않도록 한다.
- 천동·번개·홍수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건물 안이나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한다.
- 집 주변의 축대·붕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살피고 대피 준비를 한다.
- 하천도로, 지하차도, 다리 등은 안전한지 확인한 후 이용한다.

AED



'멈춰버린 심장과 폐를 다시 살리는 기술'을 뜻하는 심폐소생술(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심장이 멈추면 혈액의 순환 또한 멈추게 되어, 혈액 속의 산소가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지 못한다. 특히 뇌는 4분 안에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해 치명적이다. 고령농업인에게 특히 유용한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을 소개한다.

출처 | 소방청 '올바른 심폐소생술 및 심장충격기(AED) 사용법'



CPR 심폐소생술 함께 익혀요!

1. 반응 확인
암쪽 어깨를 두드리며 큰 소리로 깨끗한지 의식 확인

2. 신고
119신고 및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요청

3. 호흡 확인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내로 관찰해 호흡 확인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면 즉시 심폐소생술 준비

4. 기습 압박 30회
환자의 가슴압박점을 찾아 깍지 깊은 손의 손바닥 뒤품침으로 압박 실시
※ 분당 100~120회 속도, 약 5cm 깊이

5. 인공호흡 2회
- 환자의 머리를 뒤로 기울이고 턱을 들어올려기도 유지
- 환자의 코를 막고 구조자의 입을 환자 입에 밀착
- 환자의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 불어 넣기
※ 기습압박: 인공호흡 = 30:2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 까지 심폐소생술 지속하기!"

"심장충격 후 바로 심폐소생술을 이어서 하세요!"

※ 복장뼈를 이등분했을 때 아래쪽의 중간 부분이 심폐소생술 시 '가슴압박점'입니다.

AED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했다면!

1. 전원 켜기
심폐소생술 도중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 버튼 누르기
* 민족과 점상적인 로그인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

2. 패드 부착
자동심장충격기에 나와 있는 그림의 설명을 보고 정확한 위치*에 패드 부착
* 패드 1: 오른쪽 쇄골 아래
패드 2: 왼쪽 젖꼭지 아래 겨드랑이선

농업인 교육



2023년 농업인 교육을 안내합니다. 교육 신청은 과정별 교육개시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거주 주소지 관내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100% 시·군 추천 선발, 개인별 인터넷 신청 불가). 교육 신청 자격은 도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자세한 사항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기술교육 ● 귀농·귀촌교육 ● 정보학습 ● 농업기계교육 ● 특화교육

JULY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25 | 26 | 27 | 28 | 29 | 30 | 1 |
| 2 | 5. 15 ① 무인(드론)방제기 자격취득자 역량강화 실무 | 3 ② 키위 | 4 | 5 | 6 | 7 소서 / 5. 20 8 |
| 9 | 10 | 11 초복 | 12 5. 25 ③ 수출농업인 전문 교육 | 13 | 14 | 15 |
| 16 | 17 제한절 / 5. 30 | 18 6. 1 ④ 귀농 마스터 플랜 | 19 | 20 ⑤ 농작업기계 전기용접(2기) | 21 중복 ⑥ 조미채소(양파, 마늘) | 22 6. 5 |
| 23 | 24 대서 | 25 ⑦ 스마트폰 촬영 및 동영상 편집 | 26 | 27 6. 10 ⑧ 귀농 마스터 플랜 | 28 | 29 |
| 30 | 31 | | | | | |

7월

① 무인(드론)방제기 자격취득자 역량강화 실무

접수기간: 6월 3일 ~ 19일

교육기간: 7월 3일 ~ 4일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대상: 무인(드론)기 자격취득자 및 희망 농업인 25명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및 선진지 교육장

교육내용: 최첨단 드론방제기를 이용한 영농현장 방제 및 안전한 비행운영과 안전사고 예방 현장교육 등

교육문의: 061-330-2732

⑤ 농작업기계 전기용접(2기)

접수기간: 6월 20일 ~ 7월 5일

교육기간: 7월 20일 ~ 21일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25명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및 선진지 교육장

교육내용: 전기용접기 기초이론, 전기용접기를 이용한 편철·파이프 용접 1:1 현장실습 교육 등

교육문의: 061-330-2732

⑥ 조미채소(양파, 마늘)

접수기간: 6월 20일 ~ 7월 5일

교육기간: 7월 20일 ~ 21일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25명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교육관, 선도농가

교육내용: 키위 재배관리, 키위 수확 후 관리, 재배포장 및 선도농가 견학 등

교육문의: 061-330-2724

③ 수출농업인 전문 교육

접수기간: 6월 9일 ~ 26일

교육기간: 7월 10일 ~ 11일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25명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교육관, 선도농가

교육내용: 수출 정책 방향 및 지원제도, 수출 절차, 수출입 검역, 통관요령, 수출 선도농가 견학 등

교육문의: 061-330-2725

⑦ 스마트폰 촬영 및 동영상 편집

접수기간: 6월 23일 ~ 7월 10일

교육기간: 7월 25일 ~ 27일 (교육시간 21시간)

교육대상: 도내 주소를 둔 농업인

(30시간 이상 컴퓨터 교육 이수자에 한함)

교육장소: 시청자미디어센터(광주광역시 소재)

교육내용: 스마트폰 사진 촬영기법, 동영상 촬영하기, 무료 프로그램으로 이미지 편집, 동영상 프로그램 사용, 제품 홍보영상 만들기 등

교육문의: 061-330-2736

④ 귀농 마스터 플랜

접수기간: 6월 9일 ~ 26일

교육기간: 7월 11일 ~ 13일 (교육시간 2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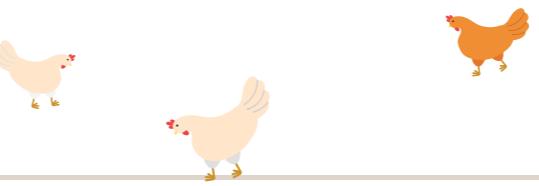
교육대상: 도내 전입한 5년 미만 귀농인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교육관

교육내용: 귀농·귀촌 지원 안내, 농장 부동산의 법률과 세무, 차별화된 농장 콘셉트 만들기, 농장 디자인 실무 이론, 농촌 체험프로그램의 이해, 선도농가 현장실습 등

교육문의: 061-330-2736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30 | 31 | 1 | 6. 15 | 2 | 3 | 4 |
| 6 | 6. 20 | 7 | 8 | 입주 9 | 10 | 말복 11 |
| 13 | 14 | 15 | 광복절 16 | 7. 1 17 | 18 | 19 |
| 20 | 7. 5 21 | 22 | 칠석 23 | 처서 24 | 25 | 7. 10 26 |
| 27 | 28 | 29 | 30 | 7. 15 31 | 1 | 2 |
| 3 | 4 | 7. 20 5 | 6 | 7 | 8 | 백로 9 |
| 8월 | | | | | | |
| 9월 | | | | | | |
| 9월 | | | | | | |
| 9월 | | | | | | |

● 전문기술교육 ● 귀농·귀촌교육 ● 정보학습 ● 농업기계교육 ● 특화교육

AUGUST

8월

| | |
|-----------------------|--------------------------|
| ① 스마트팜 | 7월 21일 ~ 8월 7일 |
| ② 프레젠테이션 활용 능력 배양 | 8월 21일 ~ 23일 (교육시간 21시간) |
| ③ 산업곤충 | 8월 24일 ~ 25일 (교육시간 14시간) |
| ④ 무인 자율주행(2기) | 8월 30일 ~ 31일 (교육시간 14시간) |
| ⑤ 중·소 가축(양돈, 양계, 흑염소) | 9월 4일 ~ 6일 (교육시간 21시간) |
| ⑥ SNS 활용 마케팅 | 9월 5일 ~ 7일 (교육시간 21시간) |

① 스마트팜

접수기간: 7월 21일 ~ 8월 7일
교육기간: 8월 21일 ~ 23일 (교육시간 21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25명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교육관, 선도농가
교육내용: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의 이해, 스마트팜 현장 활용 사례, 한국형 스마트팜 연구개발 동향 및 표준화, 엽·과채류의 생리적 특성 및 품종 특성의 이해, 스마트팜 프로그램의 종류와 적용방법, 양·수분 관리 및 급액제어, 현장교육 등
교육문의: 061-330-2725

② 프레젠테이션 활용 능력 배양

접수기간: 7월 21일 ~ 8월 7일
교육기간: 8월 22일 ~ 24일 (교육시간 21시간)
교육대상: 도내 주소를 둔 농업인 (30시간 이상 컴퓨터 교육 이수자에 한함)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산교육장
교육내용: 프레젠테이션 프로세스 구성, 파워포인트 디자인과 기능, 스피치와 프레젠테이션 스킬, 상품 소개서 등 만들기,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등
교육문의: 061-330-2736

③ 산업곤충

접수기간: 7월 24일 ~ 8월 9일
교육기간: 8월 24일 ~ 25일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25명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교육관, 선도농가
교육내용: 산업곤충 생태 및 사육관리, 식용곤충 마케팅 및 가공·유통, 중소가축 사육농가 현장학습 등
교육문의: 061-330-2724

④ 무인 자율주행(2기)

접수기간: 7월 28일 ~ 8월 15일
교육기간: 8월 30일 ~ 31일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25명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및 선진지 교육장
교육내용: 친환경 유기농업 방향, 무인 자율주행 기초이론 및 무인 트랙터·승용이양기 자율주행 프로그램 설정, 농작업 현장실습 교육 등
교육문의: 061-330-2732

⑤ 중·소 가축(양돈, 양계, 흑염소)

접수기간: 8월 4일 ~ 21일
교육기간: 9월 4일 ~ 6일 (교육시간 21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25명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교육관, 선도농가
교육내용: 양돈 사양 및 질병·위생관리, 양계 사양 및 질병·위생관리, 흑염소 사양 및 질병·위생관리, 중소가축 사육농가 현장학습 등
교육문의: 061-330-2724

⑥ SNS 활용 마케팅

접수기간: 8월 4일 ~ 21일
교육기간: 9월 5일 ~ 7일 (교육시간 21시간)
교육대상: 도내 주소를 둔 농업인 (30시간 이상 컴퓨터 교육 이수자에 한함)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산교육장
교육내용: 스마트 미디어 트렌드, 페이스북 활용하기, 인스타그램 활용하기, 카카오스토리와 밴드 활용하기, SNS 홍보하기 등
교육문의: 061-330-2736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흑하랑' 상추 1조 원대 샐러드 시장 공략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순천만가든마켓에서 스마트가드닝 전문업체인 (주)엠오그린과 푸드테크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샐러드 시장 규모는 2010년 이후 매년 성장하여 올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햇빛과 유사한 LED로 광합성 최대화라는 스마트가드닝 기술을 적용해, 아삭한 식감을 가진 기능성 상추 '흑하랑'을 샐러드 시장에 선보이게 되었다. 푸드테크(음식과 기술의 융합) 산업의 성장 요인은 '고령화로 인한 건강(영양)에 대한 관심 증가'를 꼽고 있으며, 동반 성장 분야인 샐러드 시장은 기능성 채소 유통의 새로운 활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의 | 원예연구소 장서우 연구사 (061-330-2542)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필리핀 식물산업국(BPI)과 농업과학기술 교류 업무협약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필리핀 식물산업국(BPI)과 국제 농업과학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 내용은 '연구자료 교환 및 연구자 상호 방문', '채소 작물 생산성 향상 혁신기술 교육지원', 'BPI 인력·파견근로자 교육' 등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BPI는 식물산업 부분에서 서비스 제공, 고품질 종자와 첨단 농업기술 개발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통해 수출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한편, 오이·토마토 등 채소 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 교육지원 등의 요청으로 현재 3명의 BPI 관계관이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80일 동안 오이 재배기술 교육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문의 | 친환경농업연구소 조경철 연구사 (061-330-2572)



(주)담우와 나물 가공제품 개발 업무협약 체결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고흥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담우와 고부기기치 나물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에서 생산된 나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협약 내용은 '전남산 주요 나물 이용 편이제품 개발', '전남산 나물 인지도 제고 및 소비 확대'를 비롯하여 그 밖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문의 | 친환경농업연구소 김표현 연구사 (061-330-2515)



전남 커피산업 발전 민관산학 협의체 출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차산업연구소에서 전남 커피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창립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민관산학 협의체는 국내 커피시장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지도·행정·생산·학계 등 민관산학을 대표하는 총 12개 단체가 참여해 구성되었다. 12개 단체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라남도청 식량원예과·농식품유통과, 고흥·신안군농업기술센터, 전남대학교, 순천대학교, 광주대학교, 아시아커피연맹, 전라남도특화작목협회, 마이크로맥스, 고템커피, 나로커피 등이다.

문의 | 차산업연구소 박현석 연구사 (061-850-2706)



'축산악취'·'탄소중립' 공모사업 선정, 국비 30억 원 확보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복합기술 투입 저탄소 악취 저감 모델 개발 실증연구'와 농촌진흥청의 '미생물 활용 반추가축 발효 사료 제조기술 개발 및 급여효과 구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였다. 이에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복합기술 투입 저탄소 악취저감 모델' 기술을 고도화하여 개별농가 단위가 아닌, 축산농가가 밀집된 마을단위에 미생물 농장 구축과 악취·미세먼지 제어, 분뇨 처리 단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융복합기술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의 | 축산연구소 최영선 팀장 (061-286-5870)



지역특화작목 '딸기' 미국·태국 수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프리미엄 딸기 수출 전문단지 조성 및 찾아가는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통해 지역특화작목인 딸기를 미국·태국에 수출하였다. 이번 수출은 담양에서 육성한 신품종 딸기(죽향)를 생산하는 금성 수출딸기출하회와 설향딸기를 생산하는 강진 농업회사법인 참별하(주)를 통해 이루어졌다. 선적된 담양 죽향딸기(80kg)와 강진 설향딸기(250kg)는 각각 미국 동부지역 현지 프리미엄 시장과 태국 대형마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될 계획이다.

문의 | 자원경영과 흥우진 연구사 (061-330-2593)



나주 호남원예고와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 맞손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호남원예고등학교와 한국 농업을 이끌어갈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호남원예고등학교는 첨단 영농교육 프로그램으로 청년창업농 육성에 매진하고 있는 미래농업 선도고교, 원예 분야에 특화된 학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미래농업 선도고교 육성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농촌지원과 강상구 주무관 (061-330-2743)



청년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입주자 간담회 성료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도내 경영실습 임대농장에 입주한 청년농업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작목별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무안·신안·곡성군에서 스마트팜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작목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팜 조기 확산을 위하여 도내 15개 시군 35개소의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문의 | 농촌지원과 김민수 주무관 (061-330-2742)



상큼한 '강황&유자 젤리' 제품 개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진도 지역특화작물인 강황의 소비 확대를 위하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젤리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진도는 전국 올금 생산량의 60%인 400여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진도올금'으로 제95호 지리적표시등록을 통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강황&유자 젤리 제품은 강황을 유자의 상큼한 맛과 블랜딩하여 쓴맛을 줄인 것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스틱 형태로 만들었다.

문의 | 친환경농업연구소 이유석 연구사 (061-330-2512)



'비파' 고품질·고소득 모델 개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자체 육성한 조종생종 비파인 '조아비' 등 3가지 품종의 하우스 재배기술을 지원하여 출하 시기를 3개월 앞당겨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고소득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번 기술 적용으로 노지 재배 생산대비 판매단가는 2.7배 증가한 kg당 4만 5천 원, 단위 면적당 수익도 10a당 1천만 원을 기록해 3배의 고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밖에도 농업인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결실 조절, 병해충 방제, 품질 관리기술 등을 접약한 매뉴얼을 발간해 보급하였다.

문의 | 과수연구소 박샛별 연구사 (061-880-8017)



K-유자 민산관학 협의회 성료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국내 유자 산업의 활성화와 글로벌 확산을 위해 결성한 'K-유자 민산관학 협의회'를 완도군 고금청학동유자영농조합법인에서 개최하였다. 협의회에는 도내 유자 생산·유통·가공·수출업체와 전남도청,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여러 단체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유자 산업 발전을 위하여 동해 예방 및 균일한 고품질의 과일 생산기술과 다양한 가공품 개발을 통해 유자 생과가 대량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K-유자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의 | 과수연구소 정현주 연구사 (061-880-8014)



농업인 라이브커머스 '이커머스 전사' 육성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도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추진하였다. 라이브커머스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판매방식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비대면 마케팅 방법으로,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교육에서 이론과 실습을 마친 수료자 14명이 대상이며, 농장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전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방송 콘셉트 기획부터 생산한 농식품 소개까지 실전 중심으로 진행한다.

문의 | 자원경영과 조용관 연구사 (061-330-2594)



기능성 차나무 우량묘목 4만 주 분양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자체 육성한 차나무 신품종 묘목 4만 주를 선착순 분양하였다. 대상 묘목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카테킨 함량이 많은 참녹, 흥차용으로 인기가 높은 보향 품종 등이며 1주당 1천 원에 공급하였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재래종을 대체하기 위하여 내한성이 강하고 수량과 품질이 우수한 16종의 신품종을 육성해 2015년부터 우량묘목을 농가에 보급해 오고 있으며, 특히 보성, 강진, 영암 등 도내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16㏊에 차밭을 조성하였다.

문의 | 차산업연구소 이슬 연구사 (061-850-2703)



(㈔)전남정보화농업인연합회 대군상 회장 취임

제9대 (㈔)전남정보화농업인연합회장에 대군상 씨가 취임하였다. 2006년 창립한 (㈔)전남정보화농업인연합회는 ICT 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 직거래 유통과 농업 정보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단체이다. 대군상 신임회장은 30년간 모시 농사와 모시떡 가공업을 하고 있으며, 시단법인 마을기업 협의회 총무이사를 역임하였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이들의 활동을 돋기 위해 수출 및 온라인 시장 입점, 미디어파머 양성,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및 전진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 자원경영과 박광영 주무관 (061-330-2595)



전라남도방문의해
2022-2023

2023 국제농업박람회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원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2023 국제박람회 농업 박람회

International Agriculture Exhibition 전라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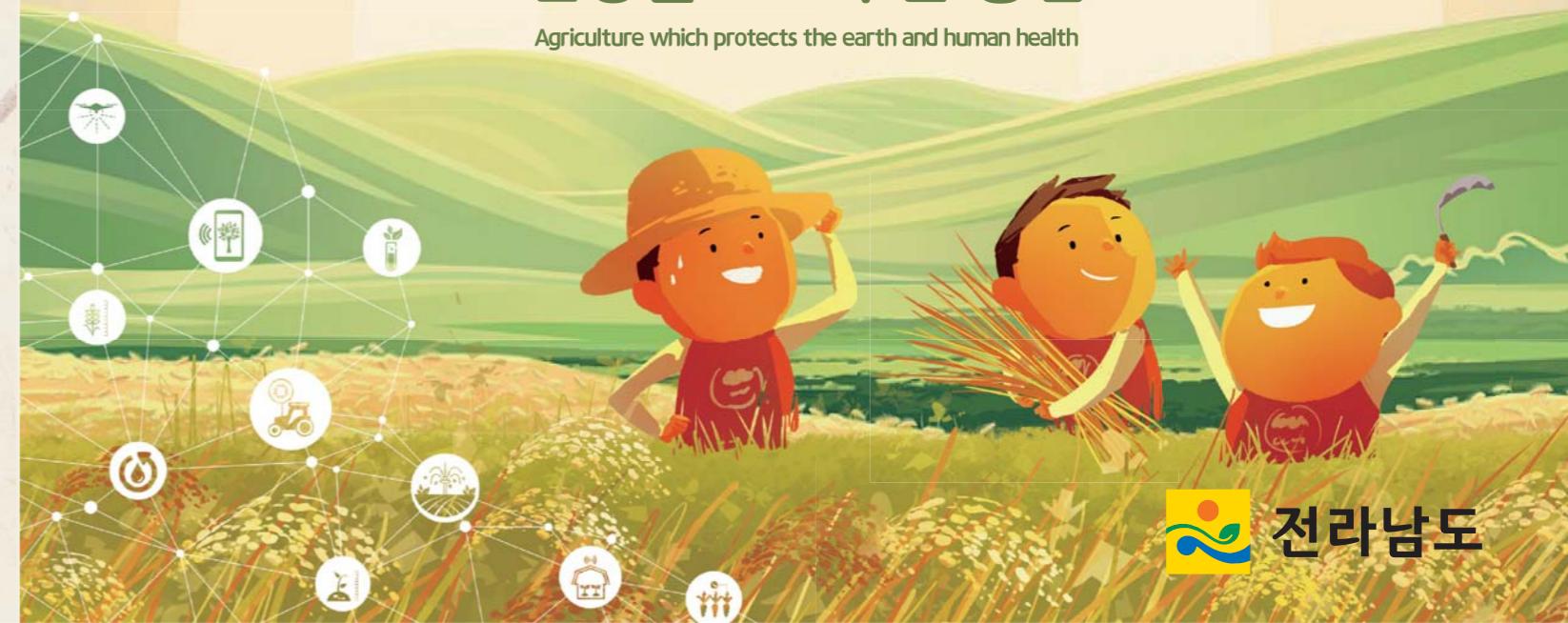
2023. 10. 12. ~ 10. 22. (11일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원



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농업

Agriculture which protects the earth and human health



전라남도

독자마당

미래로 가는 전남 농업

독자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엽서에 이번 호 퀴즈 정답과 함께 <미래로 가는 전남농업>을
읽은 소감이나 알고 싶은 농업정보를 적어
7월 10일까지 도착하도록 보내주세요.
독자 엽서를 보내신 분 중 30명을 선정해
'사과즙' 또는 '도라지배즙'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Quiz

녹차, 홍차와 같은 차 추출물에 설탕과 스코비(SCOBY)라고 일컫는 복합 미생물로 발효한 음료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54페이지 '농UP테크' 참조)

- ① 콤부차 ② 허브차 ③ 보이차 ④ 우롱차

*3·4월호 퀴즈 당첨자

순천시 '모후실에서 만난 차' 3종 세트 / 15명

권*용(나주시 빛기름동), 김*슬(경북 김천시), 정*조(영광군 대마면), 기*서(장성군 황룡면), 정*연(순천시 주암면), 조*선(광양시 동백길), 장*희(영광군 백수읍), 김*(완도군 외면), 정*순(영광군 영광읍), 이*현(나주시 그린로), 김*근(경기 의정부시), 조*라(나주시 남평읍), 고*자(광양시 봉강면), 손*숙(부산시 연제구), 김*민(담양군 봉산면)

화순군 '황금눈쌀' 잡곡 선물 세트 / 15명

이*숙(장흥군 강홍읍), 이*희(광양시 광양읍), 송*찬(광주시 광산구), 박*자(경기 부천시), 김*돈(경기 용인시), 홍*종(나주시 다시면), 정*학(함평군 월아면), 오*진(나주시 빛기름동), 박*한(광주시 서구), 김*진(대구시 수성구), 권*순(경기 광명시), 나*웅(경기 광주시), 황*태(고흥군 도암읍), 박*용(대구시 달서구), 이*주(광주시 광산구)

독자선물



15명

장성군
'꽃가실농원'
사과즙



15명

영광군
'아름답게그린
배영농조합법인'
도라지배즙



15명

영광군
'아름답게그린
배영농조합법인'
도라지배즙

고부가가치 농촌융복합산업
전라남도 경제를 활성화하다



전라
남도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우)58213 TEL. 061. 330. 2597

